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CINNA

# Whatever is happening, never doubt the love of God

믿음이란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Dear Lord 주님,

From March 2022, 3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 1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 2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 ③ 통독본문

3년 1독을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នុំជម្ល∙Tue
11
2022 JANUARY

# 노아가 함을 저주하다

Noah cursed Ham

4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60

# 맥잡기

번제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생물을 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악을 노이와 맺으시며 그 증거로 무지게를 구름 사이에 보여주셨 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잠든 자신의 모습을 목격 한 아들 '항'을 저주하여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하였습니다.

# 1 세393장(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2 무사,차세기 9:20-27

3 통독·창세기 9장

6 20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7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 으로 나카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sup>23</sup>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 음처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 더라

<sup>24</sup>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 읔 암고

<sup>25</sup>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 의 종이 되기를 워하노라하고

<sup>26</sup>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 안은 셈의 종이 되고

<sup>27</sup>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 였더라

〈내지샘플〉

#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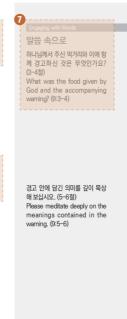
Noah, who worshipped God with burned offerings, was blessed by God to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God made a covenant with Noah to never again destroy living creatures with a flood and as proof showed the rainbow in the cloud. Noah was drunk with wine and fell asleep and his naked body was exposed to his son, Ham, whom Noah cursed to be slaves of his

月 Hymn 393 Great is Thy Faithfulness

tion • Genesis 9:20–27 Reading Han • Genesis 9

<sup>20</sup> Noah began to be a man of the soil, and he planted a vine-

- <sup>21</sup> He drank of the wine and became drunk and lay uncovered in his tent.
- 22 And Ham, the father of Canaan, saw the nakedness of his father and told his two brothers outside.
- 23 Then Shem and Japheth took a garment, laid it on both their shoulders, and walked backward and covered the nakedness of their father. Their faces were turned backward, and they did not see their father's nakedness.
- 24 When Noah awoke from his wine and knew what his youngest son had done to him,
- 25 he said, "Cursed be Canaan; a servant of servants shall he be to his brothers.
- 26 He also said,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Shem; and let Canaan be his servant.
- <sup>27</sup> May God enlarge Japheth, and let him dwell in the tents of Shem, and let Canaan be his serva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⑤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⑥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3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히 묵상합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①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처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③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간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Repet for Outches & Postus 영커리지한(안합감리교회, 금완재AK) 기쁨의 교회, 정준식(AL) 한1/호회, 한1/교회, 공동체를 위한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새해의 소망 VS 믿음 Hope and Faith in the New Year

2022년 새해의 첫 날 입니다. 2020년도 부터 시작된 팬데믹이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새해의 첫 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펜데믹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건강, 자녀들의 학업, 그리고 재정적 상황 등, 과거 보다는 나아지기를 기대하지요. 여러분도 새해를 향한 나름의 기 대와 소망을 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말씀"으로 참조하시며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언약이자 반드시 이루어질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업리, 뜻, 계획'이자, 사람들의 그것과 는 분명 다름 것입니다. 새해 첫날, 많은 사람들은 나름의 기대와 소망을 품겠지만 만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 '업리, 뜻, 계획'을 먼저 찾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음이란 창세기 1장1절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만으며 이 믿음 위에서 싫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만음이란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새해의 소망을 구하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2022. The pandemic which began in 2020 changed our lifestyle but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still brings us new expectations and hope. We expect a better future than the past and make wishes like the end of the pandemic coming soon, good health for family members, good conditions at children's schools, good financial conditions for family, etc. I can guess that you all have your own expectations and hopes for the new year. Did God also have His own expectations and hopes as He created the world with His "Word"?

God's Word by itself is the promise and the command that would be fulfilled with certainty. Therefore, the expectations and hopes of God, that is, "His providence, will, and plan," would clearly be different from those of humans. On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we may have a myriad of our own expectations and hopes, but as believers we must first seek and find the expectations and hopes or Lord - "His providence, will and plan" - because our faith is built on Genesis 1:1. Unless we seek and find the expectations and hopes in life based on our belief in the Word, "God created the world," our faith will eventually be shaken. I pray that we begin the new year today by seeking hope in the new year based on our faith in the Word.

〈내지샘플〉

#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자녀들의 매일 말씀묵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스티커를 활용해보세요

# ⑦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 Youtube 바로가기

Pacebook / Youtube 마토가?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 Youtube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성경일독/말씀묵상

# 혼자서도문제없다

# ▲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 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 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 마무리는 이렇게!

지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합니다!

# 언제가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 ✔ 모임 장소 Tip!

✓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빠〉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 2022 March

# 03

# 기쁨의 <mark>언덕으로</mark>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달의 주요일정

SUNDAY	MONDAY		TUESDAY	
			1	출애굽기 Exodus 1-2장 □
6	7	출애굽기 Exodus 7-8장 □	8	출애굽기 Exodus 9-10장 □
13	14	출애굽기 Exodus 16장 □	15	출애굽기 Exodus 17−18장 □
20	21	출애굽기 Exodus 26장 □	22	출애굽기 Exodus 27장 □
27	28	출애굽기 Exodus 33-34장 □	29	출애굽기 Exodus 35-36장 □

WEI	DNESDAY	THUR	SDAY	FRIDAY	SATURDAY
2	출애굽기 Exodus 3장 □	3	출애굽기 Exodus 4장 □	<b>4.</b> 출애굽기 Exodus 5장 □	<b>5</b> 출애굽기 Exodus 6장□
9	출애굽기 Exodus 11−12장 □	10	출애굽기 Exodus 13장 □	<b>11</b> 출애굽기 Exodus 14장 □	<b>12</b> 출애굽기 Exodus 15장□
16	출애굽기 Exodus 19-20장 🗆	17	출애굽기 Exodus 21−22장 □	18 출애굽기 Exodus 23-24장 □	19 출애굽기 Exodus 25장 □
23	출애굽기 Exodus 28장 □	24	출애굽기 Exodus 29장 □	<b>25</b> 출애굽기 Exodus 30-31장 □	<b>26</b> 출애굽기 Exodus 32장□
30	출애굽기 Exodus 37-38장 □	31	출애굽기 Exodus 39-40장 □		
				02 Febr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04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 출애굽기 Exodus

# 이 책의 이름은 어디서 왔나요?

출애굽기는 구약성서의 두 번째 책, 이스라엘 사람들은 '브엘레 쉬모트(그리고 이름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불렀는데,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들로 책 이름을 정하는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출 19:1의 희랍어 70인 역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의 '떠난'이란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어나 라틴어 번역이 '떠남, 탈출'이란 헬라어 엑소도스(영어로 Exodus)에서 나왔다면, 한글이름과 중국어 번역 출애 굽기('出埃及記)'는 희랍어 'Exodus Aigyptou'(Exodus from Egypt) 제목의 직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제목 '브엘레 쉬모트'에서 '그리고'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토라(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이야기가 "그리고 계속된다"라는 의미가 책 전체의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 모세오경과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인류의 시작에서 아브라함을 통한 히브리 족속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창세기는 아브라함 – 이삭 – 야곱 – 요셉까지 이어져 요셉이 죽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요셉이 애굽(이집트) 총리로 있던 때,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에서 내려와 살기 시작한 일가친척이 70명, 이후 430년간 번창한 이들은 거의 애굽 인구와 견주게 되

고, 왕조가 바뀌면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가 모세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의시작입니다.

# 모세오경 한줄요약

- 창세기: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바벨탑, 홍수,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선택, 아브라람,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 출애굽기 : 이스라엘의 종살이와 모세의 사명, 애굽에서 탈출, 광야에서의 삶과 옛 언약의 계시, 이스라엘의 응답
- 레위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으로서의 제사와 성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백성과 제사장의 성화
- 민수기:시내, 바란, 신, 모압 광야에서의 이스라엘과 그곳에서 행해진 두 번의 인구조사와 출애굽 1세대와 그 이후 세대의 이야기
- 신명기:가나안목전모압땅에서모세가과거를 회상하는 1차설교, 현재를 조망보며 2차설교, 미래를 향한 3차설교

#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세워가는 출애굽 공동체

제목 때문에 많은 이들은 이 책을 출애굽에 대한 기록으로만 오해하지만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은 1-12장까지 다루어지고, 13-40장까지는 출애굽 이후의 사건과 내용입니다. 이 여정은 '히브리-유대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두 책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의 갭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8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이 일어난 많은 일들은 생략되어 있고,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출애굽 기록의 배경이 됩니다. 이백만인구로 성장한 야곱의 후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창 12장)이 성취된 것이며, 애굽의 최하층민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나라 백성이 되어 인류 역사의 중심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 기록목적: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지 않은 애굽의 하층민 노예였습니다. 처음부터 노예로 산 것은 아니었지만 힉소스 왕조 이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왕이 다스린 200년 이상을 노예처럼 살아온 그 배경은 애굽에서의 10가지 기적과 홍해 사건을 경험한 출애굽 1세대(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으로 군대로 계수된사람들)가 거의 다세상을 떠난 상황에서(신 2:14~15, 민 21:12) 매우 중요한자기 정체성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노예근성을 가진 이스라엘은 자존감과 정체성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출애굽 2~3세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되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직전, 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 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신명기 9:1-2)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라는 고백은 40년 전, 그들의 앞 세대가 민수기 13~14장에서 가나안 정탐 보고를 받았을 때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 두려움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지만, 광야(출애굽) 2~3세대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능하신 분"인지를 고백하면서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는 우리를 하나님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책입니다.

#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노예, 이민자, 광야의 여행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 줄 알게 되는 열쇠가 됩니다.

- 1.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고, 듣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1-4장)
- 2. 이스라엘의 새 출발을 위해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7-12장)
- 3.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13장, 40장)
- 4. 홍해를 건너게 하고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14장)

- 5. 만나와 메추라기,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16.17장)
- 6.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절기(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와 율법(20-23장), 성막 양식(25-31장)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 7.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조건적 언약(은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24장, 34장)

# 출애굽기 아웃라인

- 1. 애굽에서의 압제와 하나님의 구원(1-15장) 이스라엘, 모세의 소명, 열 가지 재앙과 유월절, 홍해 사건과 모세의 노래
- 2. 시내산까지의 여정(15-18장) 수르 광야, 신광야: 만나와 메추라기, 르비딤: 반석의 물, 이드로의 조언
- 3. 시내산에서의 언약 체결, 율법(19-24장)
- 4. 성막건설을 위한지시(19-31장)
- 5. 금송아지 사건과 모세의 중보를 통한 재언약(32-34장)
- 6. 성막건설(35-40장)

# 출애굽기의주요질문

- 1. 모세와 출애굽(1-18장) 어떻게 구원이 가능한가?
- 2. 십계명(19-24장) 어떤 삶을 살 것인가?
- 3. 성막(25-40장)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 참고도서

출애굽기 강해 (알렉 모티어 / IVP), 구약개론 (월터 브루그만 / 기독교문서선교회) 구약개론 (구덕관 / 대한기독교서회), 뉴인터프리터 스터디바이블 (애빙돈) 해설 관주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 / 대한기독교서회), 공동번역 성서해설 (일과 놀이)

# 

2022 March

# 학대받는 이스라엘

Israel under oppression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야곱은 가나안에 닥친 흉년을 피해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는 편안하게 지냈지만, 사백여 년이 지나 애굽 사람들이 근심할 만큼 수가 늘어나자 오히려 애굽 사람들의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 ♬ 새279장(통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 <sub>묵상</sub>·출애굽기 1:6-14

통독·출애굽기 1-2장

- 6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 7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 8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 9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보다 많고 강하도다
- 10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 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 11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 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 12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 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 13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 14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 Reading Insight .....

When Joseph was Prime Minister of Egypt, Jacob ended up moving to and living in Egypt with his family to escape famine in the land of Canaan. While Joseph was still alive, Jacob's family could live comfortably in Egypt. But 400 years later, the Israelites became so numerous that the Egyptians began to dread the Israelites and began to oppress them. When the Israelites cried out. God heard their cries.

₱ Hymn297 - Pass Me not, O Gentle Saviour

## The Pass Me not, O

# Meditation • Exodus 1:6-14

Reading Plan • Exodus 1-2

- 6 Then Joseph died, and all his brothers and all that generation.
- 7 But the people of Israel were fruitful and increased greatly; they multiplied and grew exceedingly strong, so that the land was filled with them.
- 8 Now there arose a new king over Egypt, who did not know Joseph.
- <sup>9</sup> And he said to his people, "Behold, the people of Israel are too many and too mighty for us.
- 10 Come, let us deal shrewdly with them, lest they multiply, and, if war breaks out, they join our enemies and fight against us and escape from the land."
- 11 Therefore they set taskmasters over them to afflict them with heavy burdens. They built for Pharaoh store cities, Pithom and Raamses.
- 12 But the more they were oppressed, the more they multiplied and the more they spread abroad. And the Egyptians were in dread of the people of Israel.
- 13 So they ruthlessly made the people of Israel work as slaves
- 14 and made their lives bitter with hard service, in mortar and brick, and in all kinds of work in the field. In all their work they ruthlessly made them work as slaves.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고난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 난 경험이 있습니까? Have you experienced meeting God who helped you in the midst of your tribulations?

어려울 때 내가 주로 찾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What type of help do I seek when I face difficulty?

####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중앙연합감리교회, 홍진호(IL) 하이드팍한인교회, 이우민(IL) 목회자를 위한 기도

# 학대 속에 번성하는 삶 Prosperous life under oppression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참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 구절이 있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대를 받았는데,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니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거기다가, 학대하는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근심하는 입장이었다니 그것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로는 학대를 받는 사람들은 괴로워서 죽어가고, 학대를 하는 쪽은 기세등등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 각해 보니, 학대를 받아도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성도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형통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게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성도는 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When I read today's scripture, the less sense it made. "But the more they were oppressed, the more they multiplied and spread; so the Egyptians came to dread the Israelites" (12:1). The Israelites were oppressed, but they multiplied and spread. Isn't that ironic? Furthermore, the Egyptians who were the oppressors came to dread the Israelites who were the oppressed. Isn't that also strange?

Ordinarily by the world's standard the oppressed usually suffer and are ready to die, and the oppressors are usually aggressive and pompous. But, on second thought, the descendants of Israel who were oppressed but multiplied and spread are like the image of life of believers in our time.

We learn that because God is with us and God helps us, we prosper and thrive in spite of our tribulations and hardship. That is the image of the believers. Because we as believers always live under the gracious guidance of God, we overcome tribulations and difficulties, are overflowing with thanksgiving to God even in the midst of hardship and pain, and do not fall completely even though we may stumble. When God is with us, we can always live a life of victory.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PABEL WED

2022 March

#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Moses was called by God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바로의 궁에서 사십 년을 생활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양치는 목자로 사십 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애굽에서 학대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 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 ♬ 새500장(통258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 묵상·출애굽기 3:9-15

통독·출애굽기 3장

- 9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 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 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 1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 13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 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 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 14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 15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 Reading Insight ....

Having spent 40 years at the palace of Pharaoh, Moses had to flee Egypt because he killed an Egyptian. He settled down in the Midian desert and spent another 40 years as a shepherd tending sheep. One day God called Moses and asked him to go to Egypt to rescue the people of Israel under oppression, but Moses used various excuses and refused to obey the calling of God.

☐ Hymn500 - Throw out the Life Line

# Meditation • Exodus 3:9-15

Reading Plan • Exodus 3

- <sup>9</sup> And now, behold, the cry of the people of Israel has come to me, and I have also seen the oppression with which the Egyptians oppress them.
- 10 Come, I will send you to Pharaoh that you may bring my people, the children of Israel, out of Egypt."
- 11 But Moses said to God, "Who am I that I should go to Pharaoh and bring the children of Israel out of Egypt?"
- 12 He said, "But I will be with you, and this shall be the sign for you, that I have sent you: when you have brought the people out of Egypt, you shall serve God on this mountain."
- 13 Then Moses said to God, "If I come to the people of Israel and say to them, 'The God of your fathers has sent me to you,' and they ask me, 'What is his name?' what shall I say to them?"
- 14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And he said, "Say this to the people of Israel, 'I AM has sent me to you."
- 15 God also said to Moses, "Say this to the people of Israel,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s,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has sent me to you.' This is my name forever, and thus I am to be remembered throughout all generations.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Is God in your daily life?

####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블루밍톤한인교회, 안성용(IN)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 이기채(IN)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If God is with me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테니 그가 주저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이해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지도자로 너를 세웠다고 하자,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까"(11절). 그런데 이런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12절).

모세는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너는 이런 이런 사람이다"라고 대답하시는 대신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은 모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도, 이제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While tending sheep in the desert, one day suddenly Moses was called by God. Because Moses never even thought about the possibility, it is understandable that he was hesitant and reluctant to accept. When God told him that he was chosen to be the leader to take the Israelites out of Egypt, he asked, "Who am I, that I should go to Pharaoh and bring the Israelites out of Egypt?" (3:11). But God's answer to Moses was interesting, "I will be with you. And this will be the sign to you that it is I who sent you: When you have brought the people out of Egypt, you will worship God on this mountain" (3:12).

When Moses asked, "Who am I to do what you asked, what kind of a man am I?" God didn't answer, "You are such and such a man." Instead, God answered, "I will surely be with you." Isn't it interesting? As we carry out the mission given by God, it is not important who we are. Rather to those called by God, it is more important whether or not God is with us.

The power to rescue Israel does not come from Moses but from God. Therefore, rather than how capable Moses is or what kind of a man Moses is, it is more important whether God is with him or not. We often spend a lot of time trying to prove how capable we are but we need to be sure that the God of capability is with us and we must live on the capability of Go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rangi-Thu

2022 March

# 모세의 순종

Obedience of Moses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은 여러 가지 표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주저 하며 자기는 말이 어눌하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합니다. 하나 님은 말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주셨고, 모세는 마 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 ♬ 새595장(통372장) 나 맡은 본분은

# 묵상·출애굽기 4:21-31

통독·출애굽기 4장

- 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 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 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 주 지 아니하리니
- 22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 23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 24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 25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 이로다 하니
- 26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 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 27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 28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 29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 으고
- 30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 31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 더라

# Reading Insight ....

When God called Moses as a leader to save the Israelites out of Egypt, He showed Moses many signs. But Moses still hesitated and asked God to send someone more suitable because he was slow of speech and tongue. Once God chose Moses' brother Aaron who was eloquent as a spokesperson, Moses finally obeyed the calling of God.

☐ Hymn595 - A Charge to Keep I Have

# Meditation • Exodus 4:21-31

Reading Plan • Exodus 4

- 21 And the LORD said to Moses, "When you go back to Egypt, see that you do before Pharaoh all the miracles that I have put in your power. But I will harden his heart, so that he will not let the people go.
- 22 Then you shall say to Pharaoh, 'Thus says the LORD, Israel is my firstborn son,
- 23 and I say to you, "Let my son go that he may serve me." If you refuse to let him go, behold, I will kill your firstborn son."
- **24** At a lodging place on the way the LORD met him and sought to put him to death.
- 25 Then Zipporah took a flint and cut off her son's foreskin and touched Moses' feet with it and said, "Surely you are a bridegroom of blood to me!"
- 26 So he let him alone. It was then that she said, "A bride-groom of blood," because of the circumcision.
- 27 The LORD said to Aaron, "Go into the wilderness to meet Moses." So he went and met him at the mountain of God and kissed him
- 28 And Moses told Aaron all the words of the LORD with which he had sent him to speak, and all the signs that he had commanded him to do.
- 29 Then Moses and Aaron went and gathered together all the elders of the people of Israel.
- 30 Aaron spoke all the words that the LORD had spoken to Moses and did the signs in the sight of the people.
- **31** And the people believed; and when they heard that the LORD had visited the people of Israel and that he had seen their affliction, they bowed their heads and worshiped.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온전한 순종은 백퍼센트의 순종입 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아직도 하 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 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Complete obedience is 100% obedience. As a believer of God, if there is any part of God's Word that you do not put into practice, what is it?

#### God Momen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퍼듀제자교회, 이종민(IN)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 임일호(KS)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온전한 순종 Complete obedience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며 주저하던 모세가 드디어 가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모세를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이었는데 왜 갑자기 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어섰지만, 그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아들의 할례 문제였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인지, 모세의 아들은 그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난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일을 하러 가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십보라가 빨리 아들의 할례를 행해서 모세가 죽을 위기를 넘 겼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백 퍼센트의 순종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 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풀어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Initially hesitating, Moses finally obeyed God's calling to go to Egypt. Then God almost had Moses killed. Why did God try to kill Moses when he had specifically chosen Moses for the job? When Moses got up to do the work of God, there was some unfinished business. That was the matter of the circumcision of Moses' son.

Maybe because Moses' wife Zipporah was a gentile, Moses' son had not been circumcised. God had commanded all Israelite sons to be circumcised within eight days of their birth. Moses was called as the leader of Israel and he was on his way to do the work of God, but Moses was not yet in complete obedience of God's commandment.

Luckily Zipporah acted swiftly and circumcised their son, and Moses was able to avoid the crisis of death. Complete obedience means 100% obedience. If there is a part of your life in which you are still not completely obedient to God's Word, you must correct it to become a person worthy of God's calling.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3821·Fri

2022 March

# 바로의 억압

Oppression of Pharaoh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 앞에 가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그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가서 일이나 하라며 요청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합니다.

# ♬ 새322장(통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 <sub>묵상</sub>·출애굽기 5:15-23

통독 · 출애굽기 5장

- 15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 이까
- 16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 17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 18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 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 19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치 줄앜고
- 20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 21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워하노라
- 22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 23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 Reading Insight ······

Upon God's command, Moses and Aaron appeared in front of Pharaoh the king of Egypt and asked him to let the people of Israel go so that they would worship God in the desert. But Pharaoh told them to go back to their people and work harder and refused their request. The labor of the Israelites became more difficult.

☐ Hymn322 - Gather Us in, Thou Love

# Meditation • Exodus 5:15-23

Reading Plan • Exodus 5

- 15 Then the foremen of the people of Israel came and cried to Pharaoh, "Why do you treat your servants like this?
- 16 No straw is given to your servants, yet they say to us, 'Make bricks!' And behold, your servants are beaten; but the fault is in your own people."
- 17 But he said, "You are idle, you are idle; that is why you say, 'Let us go and sacrifice to the LORD.'
- 18 Go now and work. No straw will be given you, but you must still deliver the same number of bricks."
- 19 The foremen of the people of Israel saw that they were in trouble when they said, "You shall by no means reduce your number of bricks, your daily task each day."
- 20 They met Moses and Aaron, who were waiting for them, as they came out from Pharaoh;
- <sup>21</sup> and they said to them, "The LORD look on you and judge, because you have made us stink in the sight of Pharaoh and his servants, and have put a sword in their hand to kill us."
- 22 Then Moses turned to the LORD and said, "O Lord, why have you done evil to this people? Why did you ever send me?
- 23 For since I came to Pharaoh to speak in your name, he has done evil to this people, and you have not delivered your people at all."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결심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나빠진 적이 있습니까? 그 때 나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When you decided to be more faithful, did you experience situations that worsened? What was your reaction then?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어떻 게 하면 좋을까요?

How do you react when things turn out to be not what you expected?

####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문주현(KS)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김다위(KS)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긁어 부스럼 Open a can of worms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 달라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들은 바로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바로는 신적인 존재로, 다른 신을 경배하러 가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덜 힘들어서 시간이 남아 이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탄압합니다. 차라리 가만히 두었으면 나았을 텐데. 괜히 긁어 부스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이 더 힘들어지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것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인데,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니 난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으면 일이잘 풀리고,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열심을내자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악한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힘든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믿음의 순종이 어려움을 가져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견디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When Pharoah heard the plea of Moses and Aaron to let the people of Israel go to the desert so that they could worship their God there, he flatly refused. Maybe it was really a natural reaction. At that time, Pharaoh of Egypt was a god and the thought of leaving to worship some other god was unthinkable. Pharaoh thought that the labor imposed on the Israelites was not hard enough, leaving them time to waste engaging in this kind of idle thinking and increased the level of oppression. The Israelites would have been better off if they had left Pharoah alone. Instead, they opened a can of worms.

As things worsened, the people of Israel had forgotten that they cried out to God for help and had forgotten that they worshipped God encouraged by Moses and Aaron. Instead, they blamed Moses and Aaron. From the point of view of Moses and Aaron, all they did was obey God, and as the situation worsened, their position became awkward. When we are sure that our faith is firm and strong, we expect that we would prosper in all things and our surrounding circumstances would turn out well. However, as we accelerate our faith journey, things could turn for the worse. But we should not consider this strange because trying to live life in this evil world according to faith is naturally hard.

When obedience in faith brings hardship, how do we act? We must persevere by praying with faith. We must trust the promise of God who leads all things to goodness and we need to endure with courage and become faithful believers.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국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ERSI-Sat

2022 March

# 마음이 상한 백성들

People discouraged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거절한 바로가 더 가혹한 노역을 지시하자, 백 성들은 마음이 상해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음 을 한 번 더 확증해 주십니다.

# ♬ 새325장(통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 묵상・출애굽기 6:1-9

통독·출애굽기 6장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 <sup>2</sup>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 니라
- 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 니하였고
- 4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 들과 언약하였더니
- 5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 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 7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 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 9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 Reading Insight <>>

As Pharaoh increased harsh labor after refusing the request of Moses and Aaron, the people of Israel were discouraged and refused to listen to the promise of God delivered by Moses. God re-enforced His command that Moses and Aaron were chosen as leaders of the Israelites.

Hymn325 – Living for Jesus

## Meditation • Exodus 6:1-9

Reading Plan • Exodus 6

- <sup>1</sup> But the LORD said to Moses, "Now you shall see what I will do to Pharaoh; for with a strong hand he will send them out, and with a strong hand he will drive them out of his land."
- <sup>2</sup> God spoke to Moses and said to him, "I am the LORD.
- 3 I appeared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 as God Almighty, but by my name the LORD I did not make myself known to them.
- <sup>4</sup> I also established my covenant with them to give them the land of Canaan, the land in which they lived as sojourners.
- 5 Moreover, I have heard the groaning of the people of Israel whom the Egyptians hold as slaves, and I have remembered my covenant.
- 6 Say therefore to the people of Israel, 'I am the LORD, and I will bring you out from under the burdens of the Egyptians, and I will deliver you from slavery to them, and I will redeem you with an outstretched arm and with great acts of judgment.
- 7 I will take you to be my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and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your God, who has brought you out from under the burdens of the Egyptians.
- 8 I will bring you into the land that I swore to give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 I will give it to you for a possession. I am the LORD."
- <sup>9</sup> Moses spoke thus to the people of Israel, but they did not listen to Moses, because of their broken spirit and harsh slavery.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마음이 상했을 때 나의 신앙 생활 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When I am discouraged, how does it affect my faith journey?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와 새 힘을 얻 은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received comfort and new strength through God who keeps the discouraged close to Him?

####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 정룡재(KS)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상순(K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상한 마음 Hearts broken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전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을 말했을 때는 백성들은 머리 숙여 경배했었는데, 백성들이 기대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가혹한 핍박과 노역이 계속되자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해야 합니다. 시편 34절 18절과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살다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에게 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고 도우시 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 니다.

Moses once again delivered the promise of God that God would lead the people to the new promised land, but people did not listen. When Moses and Aaron first assembled the elders of Israel to announce the plan of exodus, people bowed their heads and worshipped God. But things did not go according to their expectation. Severe oppression and hard labor continued and people were discouraged.

Satan discourages us through various calamities in our lives and ultimately keeps us away from God. Satan makes us not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But we need to be nearer to God when we are discouraged. Psalm 34:18–19 says, "The LORD is close to the brokenhearted and saves those who are crushed in spirit. A righteous man may have many troubles, but the LORD delivers him from them all···"

During our life, our hearts are broken from time to time when things are tough and hard. At those times, we should not listen to the tempting whispers of Satan, and we should not be kept far away from God or from the Word of God. On the contrary, we should remember that God comes closer to the discouraged and helps them, and I hope you will use the opportunity to be nearer to Go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06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 경 본 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애굽에서 건져주신 목적

장이준목사 (콜럼버스 한인연합감리교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만 고생하라고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목적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도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 이르 렀을 때에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려 11개월 보름 동안 말씀 으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의 우상 문화에 젖어있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옷이 해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와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삿 2:11) 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삿 2:10) 고 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삿 21:25) 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목적과 정반대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두 종류의 이단들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이단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단은 율법 폐기론자 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이제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에서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하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그레데 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딛 1:16). 그레데 교회 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였지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은 불신자들과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 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충격적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 이 이러하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 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딛 2:16) 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도록 구원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남자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가 부럽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까요? 이런 모습은 부끄러운 구원이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여러 번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하신 말씀 가운데 참 인상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23:13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배우는데, 그들의 모습이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하는 책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지나 않는 지돌아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 니까? 그것은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며 믿음의 선한 삶을 힘써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 겠습니다.



# вае моп **07**

2022 March

# 애굽에 내린 재앙

Calamities upon Egypt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바로가 전혀 응답하지 않자, 하나님은 애굽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애굽 땅에 들끓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 ♬ 새259장(통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 묵상·출애굽기 7:1-6

통독 · 출애굽기 7-8장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 <sup>2</sup>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 3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 4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 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 5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 6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 Reading Insight

As Pharaoh completely refused to respond to the command of God to let the Israelites go, God sent various calamities to the land of Egypt. The calamities included the Nile River turning into blood and frogs and flies covering all of Egypt. However, having witnessed all these calamities, Pharaoh did not turn his ears to the words of God

☐ Hymn259 - Have You Been to Jesus

Meditation • Exodus 7:1-6

Reading Plan • Exodus 7-8

- <sup>1</sup> And the LORD said to Moses, "See, I have made you like God to Pharaoh, and your brother Aaron shall be your prophet.
- <sup>2</sup> You shall speak all that I command you, and your brother Aaron shall tell Pharaoh to let the people of Israel go out of his land.
- <sup>3</sup> But I will harden Pharaoh's heart, and though I multiply my signs and wonders in the land of Egypt,
- 4 Pharaoh will not listen to you. Then I will lay my hand on Egypt and bring my hosts, my people the children of Israel, out of the land of Egypt by great acts of judgment.
- 5 The Egyptians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I stretch out my hand against Egypt and bring out the people of Israel from among them."
- 6 Moses and Aaron did so; they did just as the LORD commanded them.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내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고 고집세 고 악한가요, 아니면 부드러운가요? Is your heart as hard as rock, intransigent and evil, or soft?

어떻게 해야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 워질 수 있을까요? How can we convert our hardened heart into a soft one?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ver for Churches & Pastor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 이동섭(LA) 리스빌연합감리교회, 조성우(L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바로의 완악함 Pharaoh's heart is hardened

바로는 모세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완악하다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라고 했고, 개역 한글에서는 완강하다고 표현했고, 새번역에서는 고집이 세다고 번역했습니다. 돌처럼 굳어진 마음, 완강한 마음, 고집이 센 마음, 이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왜 이렇게 완악하게 되었을까요?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하고"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했으니 하나님 책임인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가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드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바로의 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악한데도,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본다면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돌이키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죄된 상태에 그저 내버려 둔다는 것은 더 이상 상관하지도, 관심을 갖지도 않겠다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그것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니, 감사함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Pharaoh did not listen to the words of God spoken through Moses because his heart was hardened. The word "hardened" is translated in the modern contemporary Bible as "heart as hard as rock," in the revised Korean Bible as "intransigent", and in the new translation as "stubborn". A heart as hard as rock, an intransigent heart, a stubborn heart – all of these are hardened hearts. The Word of God cannot enter these kinds of hearts. Then how did Pharaoh's heart become so hardened? In Exodus 7:3 God said, "I will harden Pharaoh's heart." Since God hardened Pharaoh's heart, was it the responsibility of God? No. Here when God said that He had hardened Pharaoh's heart, it did not mean that God turned a good man into an evil man

God acquiesced to the evil mind of Pharaoh while he lived refusing to accept God as the one true God. If God acquiesces to evil and sin, that is a truly dreadful judgment. If a person is loved by God and goes astray on a wrong path, God would never leave that person alone. God would by all means try to help the person to turn to the right path. Therefore to leave the sinner alone as sinful means that the sinner is out of the mind and out of the interest of God, and that is truly dreadful. From time to time, if God punishes us, it means God has not given up and still loves us, and I hope that we would accept it with thanksgiving.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ক্রপ্র • Tue

2022 March

# 애굽에 임한 재앙

Calamities upon Egypt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애굽 땅에 임한 재앙을 보고도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앙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축에 돌림병이 생겼고, 악성 종기가 사람과 짐승을 괴롭히고, 우박이 내려 모든 농작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남아 있던 곡식마저 메뚜기 떼가 와서 다먹어치우고, 사흘이나 천지 분간이 어려운 흑암이 뒤덮었습니다.

#### ♬ 새254장(통186장) 내 주의 보혈은

## 묵상·출애굽기 10:21-29

통독·출애굽기 9-10장

- 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 22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삼 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 23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 24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 25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 26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 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 27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 28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는 죽으리라
- 29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 Reading Insight

Having witnessed calamities upon Egypt, the hardened heart of Pharaoh did not change. Therefore he could not avoid other calamities. Animals were infected with pandemic, festering boils bothered people and animals, and all kinds of crops were damaged by hail. Even those crops that survived the hail were consumed by locusts. Darkness covered the entire land for three days such that people could not see anything even during the day.

☐ Hymn254 - I hear Thy welcome voice

Meditation • Exodus 10:21-29

Reading Plan • Exodus 9–10

- 21 Then the LORD said to Moses, "Stretch out your hand toward heaven, that there may be darkness over the land of Egypt, a darkness to be felt."
- 22 So Moses stretched out his hand toward heaven, and there was pitch darkness in all the land of Egypt three days.
- 23 They did not see one another, nor did anyone rise from his place for three days, but all the people of Israel had light where they lived.
- 24 Then Pharaoh called Moses and said, "Go, serve the LORD; your little ones also may go with you; only let your flocks and your herds remain behind."
- **25** But Moses said, "You must also let us have sacrifices and burnt offerings, that we may sacrifice to the LORD our God.
- 26 Our livestock also must go with us; not a hoof shall be left behind, for we must take of them to serve the LORD our God, and we do not know with what we must serve the LORD until we arrive there."
- **27** But the LORD hardened Pharaoh's heart, and he would not let them go.
- 28 Then Pharaoh said to him, "Get away from me; take care never to see my face again, for on the day you see my face you shall die."
- 29 Moses said, "As you say! I will not see your face again."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바로의 교만함을 보면서 어떤 생각 이 들었습니까?

Having watched the insolence of Pharaoh, what kind of thoughts do you have?

나는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만 할까요?

Do you have the confidence to be recognized as a humble person by God?

####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보스톤연합감리교회, 안신형(MA)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최진용(MA) 목회자를 위한 기도

# 바로의 교만 Insolence of Pharaoh

바로는 고집이 대단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경고를 들은 신하들이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느냐고 물을 정도가 되었지만, 바로는 마음을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다가도 재앙이 멈추면 다시 강퍅해졌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네가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10:3)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교만한 채로 살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무시하고 살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가, 교만한가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성품, 성격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기 전에,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는 겸손하다, 혹은 교만하다 말하지, 혼자 겸손과 교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로는 임박한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아홉 번이나 경험하고서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Pharaoh was severely stubborn. When his servants heard the warning of calamity by locusts, they cried out, "Do you not know that Egypt is ruined?" but Pharaoh refused to change his mind. He seemed to have accepted the demand of Israel for a while but as soon as the calamity ended, he became stubborn again. To this, God asked, "How long will you refuse to humble yourself before me?" (10:3). God asked Pharoah until when he would be insolent and ignore Him.

To judge whether a certain person is humble or arrogant, before we talk about their personality or character, we must talk about that person's relationship. We cannot talk about humility or arrogance by itself. When we speak about whether a person is humble or arrogant, we must observe their relationship with others. In our relationship with God, those of us who do not know or recognize God are insolent and those of us who know, recognize, and depend on God are humble. Pharoah experienced the warnings of God's imminent judgment nine times but he never turned around. Instead, he ignored the warnings and resisted with insolenc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ABU·Wed

2022 March

# 어린 양의 피

Blood of a little lamb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하나님이 주신 무려 아홉 번의 기회에도 바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겠노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양을 피해 속히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와인방에 바르면 되었습니다.

# ♬ 새252장(통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 <sub>묵상</sub>·출애굽기 12:11-15

통독·출애굽기 11**-**12장

- 11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 와의 유월절이니라
- 12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 13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 14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 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 15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 Reading Insight .....

In spite of nine opportunities given by God, Pharaoh never repented and refused to let the Israelites go. God warned that He would kill all the firstborns in Egypt and told the Israelites to be prepared to flee Egypt promptly to be saved from the calamity. In order to escape this dreadful calamity, each family had to sacrifice a lamb and put the blood on the sides and tops of the door frames of the houses.

√ Hymn252 - What Can Wash Away my sin

Meditation • Exodus 12:11-15

Reading Plan • Exodus 11-12

- 11 In this manner you shall eat it: with your belt fastened, your sandals on your feet, and your staff in your hand. And you shall eat it in haste. It is the LORD's Passover.
- 12 For I will pass through the land of Egypt that night, and I will strike all the firstborn in the land of Egypt, both man and beast; and on all the gods of Egypt I will execute judgments: I am the LORD.
- 13 The blood shall be a sign for you, on the houses where you are. And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and no plague will befall you to destroy you, when I strike the land of Egypt.
- 14 "This day shall be for you a memorial day, and you shall keep it as a feast to the LORD; throughout your generations, as a statute forever, you shall keep it as a feast.
- 15 Seven days you shall eat unleavened bread. On the first day you shall remove leaven out of your houses, for if anyone eats what is leavened, from the first day until the seventh day, that person shall be cut off from Israel.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심판과 멸망의 밤이 구원과 해방의 밤이 될 수 있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What do you need to do to turn the night of judgment and destruction into the night of salvation and liberation?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는 구원 을 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Do you have confidence that you are saved by the grace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비젼교회, 이충호(MA)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 조상연(M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그 밤에" "On that same night"

애굽에 마지막 재앙,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이 내릴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12:12) 애굽 땅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집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됩니다. 이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월절인데, 유월이란 "넘어간다,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 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심판이 지나갑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이룬 것과 행한 것은 중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 다. 그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 듯이, 우리 모두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 기를 소망합니다.

The night of the final calamity, the dreadful night when all the firstborns would be slaughtered, has come. God said that "on the same night" all the firstborn in Egypt would be judged by Him (12:12). But there was a way out of this calamity. The way out was to put the blood of a slaughtered lamb on the sides and tops of the door frames. When God saw this blood, He said the calamity would pass over the door frames and therefore the house. In Exodus the most important event is the Passover. The word "passover" means "pass over, the judgment does not touch the house and pass over." What do we need for the judgment to be passed over? We need the blood of the young lamb.

How rich the people in the house are, whose tribe the people belong to, what kind of good life they have lived, or what kind of good deeds they have done – none of these are important. Only the blood of the young lamb could make the judgment pass over. The salvation of the believers is the same. What we have, what we have achieved, or what we have done are not important. We are saved only by the grace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As those who put the blood of a slaughtered lamb on the sides and tops of the door frames were saved that night, I hope that we all would be saved by the grace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who is the young lamb.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Zencio Thu

2022 March

# 이스라엘의 여정

The Journey of Israel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위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하나님은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유월절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 ♬ 새370장(통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묵상·출애굽기 13:17-22

통독·출애굽기 13장

- 17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 18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 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 올 때에
- 19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 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 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 20 그들이 숙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담에 장막을 치니
- 21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 22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 지 아니하니라

# Reading Insight ....

The exodus was the most important event in the life of Israel. However, the exodus was not the end but the beginning. The journey to experience the promise of God had just begun. After the Israelites left Egypt, God commanded the offering of the firstborn of men and animals and commanded them to remember the grace of God by observing Passover.

☐ Hymn370 - 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s

Meditation • Exodus 13:17-22

Reading Plan • Exodus 13

- 17 When Pharaoh let the people go, God did not lead them by way of the land of the Philistines, although that was near. For God said, "Lest the people change their minds when they see war and return to Egypt."
- **18** But God led the people around by the way of the wilderness toward the Red Sea. And the people of Israel went up out of the land of Egypt equipped for battle.
- 19 Moses took the bones of Joseph with him, for Joseph had made the sons of Israel solemnly swear, saying, "God will surely visit you, and you shall carry up my bones with you from here."
- **20** And they moved on from Succoth and encamped at Etham, on the edge of the wilderness.
- 21 And the LORD went before them by day in a pillar of cloud to lead them along the way, and by night in a pillar of fire to give them light, that they might travel by day and by night.
- <sup>22</sup> The pillar of cloud by day and the pillar of fire by night did not depart from before the people.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처음 걷는 인생길을 나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How are you doing on the road of life being treaded on for the first time?

하나님이 언제나 앞서 가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Do you believe in and depend on God that He goes always ahead of you and always with you?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 강명석(MA)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현태(M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The journey guided by God

이제 가나안으로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빨리 갈수 있는 블레셋 길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광야 길이었습니다. 블레셋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쉽고, 편한 무역로로 만약 이스라엘이 이 길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15일 정도면 이동할 수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 광야 길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길도 없는 황무지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블레셋 길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17절)이라 말합니다. 블레셋 길을 점령하고 있는 족속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고, 사백 년이 넘게 노예로만 살아온 이스라엘은 전혀 전쟁을 치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블레셋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또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쉽고 편하고 빠른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더 힘들어 보이는 길로 돌아가게도 하시고, 내 뜻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조급해 하거나 두려워함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Now the real and serious journey to Canaan began. Once out of Egypt, Israel had two choices: one was a shorter way but passed through Philistine and another was a longer way through the wilderness. The road through Philistine was the easiest and convenient road from Israel to Canaan and was the trade road. If the Israelites had taken this road they could have arrived at Canaan in about 15 days. However, God had led them on an entirely different road through the wilderness. As a matter fact, to be more precise, God led them through the desert where there was no road.

The Bible provides the reason. "If they had taken the road through Philistine, they could face war against mighty gentiles" (13:17). Those tribes occupying Philistine were experienced warriors whereas Israel was totally unprepared to face war having spent 400 years as slaves. Knowing this, God blocked the road to Philistine. God also went ahead of them in a pillar of clouds to guide them on their way and by night in a pillar of fire to give them light, so that they could travel by day or night.

People always want to take the easy, convenient, and short road to travel. But God sometimes leads us to seemingly more difficult roads or detours us through a much longer way or one entirely different from our intended road. But the road guided by God is always the best road. We must trust and follow the road led by God without anxiety or fear.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HADELY Fri

2022 March

#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God divided the Red Sea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이스라엘이 홍해 앞까지 간 사이, 애굽의 바로는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뒤쫓아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지만 모세는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애굽의 모든 군사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 ♬ 새342장(통395장) 너 시험을 당해

## 묵상·출애굽기 14:6-14

통독·출애굽기 14장

- 6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 7선발된 병거 육백 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 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 8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 9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 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 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 10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 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 11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 12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 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 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 니하리라
-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 Reading Insight <>>

When Israel arrived at the Red Sea, Pharaoh mobilized all the chariots and army of Egypt and started pursuing Israel. The people of Israel poured out complaints and blame when faced with difficulties but Moses boldly delivered the promise of God, and God defeated the Egyptian army through the miracle of dividing the Red Sea.

☐ Hymn342 - Yield not to Temptation

## Meditation • Exodus 14:6-14

Reading Plan • Exodus 14

- <sup>6</sup> So he made ready his chariot and took his army with him,
- <sup>7</sup> and took six hundred chosen chariots and all the other chariots of Egypt with officers over all of them.
- 8 And the LORD hardened the heart of Pharaoh king of Egypt, and he pursued the people of Israel while the people of Israel were going out defiantly.
- 9 The Egyptians pursued them, all Pharaoh's horses and chariots and his horsemen and his army, and overtook them encamped at the sea, by Pi-hahiroth, in front of Baal-zephon.
- 10 When Pharaoh drew near, the people of Israel lifted up their eyes, and behold, the Egyptians were marching after them, and they feared greatly. And the people of Israel cried out to the LORD.
- 11 They said to Moses, "Is it because there are no graves in Egypt that you have taken us away to die in the wilderness? What have you done to us in bringing us out of Egypt?
- 12 Is not this what we said to you in Egypt: 'Leave us alone that we may serve the Egyptians'? For it would have been better for us to serve the Egyptians than to die in the wilderness."
- 13 And Moses said to the people, "Fear not, stand firm,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which he will work for you today. For the Egyptians whom you see today, you shall never see again.
- 14 The LORD will fight for you, and you have only to be silent."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첫 반응은 어떠합니까?

What is your first reaction when you face difficulty?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말씀이 나에게 확 신과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Does the phrase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give you affirmation and comfort?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ver for Churches & Pastors

늘사랑연합감리교회, 박종희(MD) 베다니한인교회, 박대성(MD)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어려움이 닥칠 때 When difficulties come

앞에는 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에 사로잡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모세와 백성들의 반응은 왜 그렇게 달랐을까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며 원망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병이 반드시 나을 것을 알고 믿고 있다면, 당장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담대히 견뎌낼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좋으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굳건히 믿지 못하면 하루 하루 생기는 어려움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남 탓, 하나님 탓을 하 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Ahead of them was the Red Sea and the Egyptian army pursuing them from behind. Having just experienced the exodus out of Egypt, the people of Israel were overwhelmed with blame, complaints, and fear. But Moses boldly pronounced the coming work of God to them. Why were the reactions of Moses and the people so different? The difference was "faith." Moses paid attention to and trusted the promise of the Word of God and boldly waited for the work of God. Although the people of Israel also heard the Word of God with Moses, they did not believe the Word of God and poured out blame as they were trembling with fear.

The reason why we fear when we confront difficulties is because we do not know what kind of result the situation will bring. The reason why we fear when we are ill is that we do not know what will happen to us. If we know for sure and believe that we will be completely cured, we can boldly endure even though now it is difficult and our body is in pain.

In fact,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and God is good all the time. But if we do not believe firmly in this promise we reel left and right, buckle in front of daily difficulties, and blame others and blame God. Faith makes us triumph. Faith enables us to endure. Faith makes us boldly go forwar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ER일·Sat

2022 March

#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원망

Praise and Complaints to God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무사히 바닷길을 건넜는데,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넘실대는 바닷물에 빠져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벅찬 감동과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흘 만에 마라의 물 때문에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 새545장(통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 묵상·출애굽기 15:20-27

통독·출애굽기 15장

- 20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 21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 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 22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 23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 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 24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 까 하매
- 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 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 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 26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 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 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 27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 Reading Insight ....

The Israelites crossed the sea safely without getting wet, but the Egyptian soldiers following them drowned in the rushing sea. Moses and the people of Israel, who experienced this amazing power of God, give thanks and praise with overwhelming emotion. But on the third day, the people complain about the waters of Marah.

Hymn545 - Down in the Valley Where the Mists of Doubt Arise

Meditation • Exodus 15:20-27

Reading Plan • Exodus 15

- 20 Then Miriam the prophetess, the sister of Aaron, took a tambourine in her hand, and all the women went out after her with tambourines and dancing.
- 21 And Miriam sang to them: "Sing to the LORD, for he has triumphed gloriously; the horse and his rider he has thrown into the sea."
- 22 Then Moses made Israel set out from the Red Sea, and they went into the wilderness of Shur. They went three days in the wilderness and found no water.
- 23 When they came to Marah, they could not drink the water of Marah because it was bitter; therefore it was named Marah.
- 24 And the people grumbled against Moses, saying, "What shall we drink?"
- 25 And he cried to the LORD, and the LORD showed him a log, and he threw it into the water, and the water became sweet. There the LORD made for them a statute and a rule, and there he tested them,
- 26 saying, "If you will diligently listen to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and do that which is right in his eyes, and give ear to his commandments and keep all his statutes, I will put none of the diseases on you that I put on the Egyptians, for I am the LORD, your healer."
- 27 Then they came to Elim, where there were twelve springs of water and seventy palm trees, and they encamped there by the water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When things are difficult, do thanks and praise come out of your mouth, or do grudges and complaints come out of your mouth?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신앙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How does God view believers who speak two different things with the same mouth?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성령의 불꽃 교회, 유재유(MD) 에덴연합감리교회, 신요섭(MD)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한 입으로 두 말 하기

Saying two different things with one mouth

바닷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백성들은 감격스러운 마 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딱 삼일 만에 마라의 쓴맛 이 나서 마실 수 없는 물 때문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성경 한 장이 채 넘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던 그 입으로 원망하고 불 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다 해놓고 이제 나쁘다 합니다. 이런 그들 의 모습에서 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떠들어 대고도 며칠도 안 되어. 별거 아닌 일로 짜 증 내고 불평하고 낙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황이 잘 풀 리고 뜻대로 되어나갈 때에는 누구나 다 기분 좋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느 성도라도 할 수 있지만,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도 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쓴 물만 있는 황무지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 하고 경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이 물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셨다 했는 데, 이스라엘의 믿음은 아직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였 습니다. 신앙인으로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The people experienced the amazing miracle of the sea parting and praised God fervently with thrilled hearts. But within just three days people are complaining about the bitter water at Marah which they can't drink. Before even a single chapter of the Bible could be read, the Israelites complained and grumbled with the same mouth they praised. They say God is good and now they say He is bad. I can't help but think of myself when I look at them.

How often do we get irritated and discouraged and complain over trivial things within a few days of talking about God's grace? When things go well and things go my way, everyone can react in a good manner. But when things get tough, the person's true heart is revealed. Any believer can praise God when things are going well, but being able to praise and thank God even when things get tough depends on the strength of faith of the believer.

In a desert without water, in a wasteland with only bitter water, the shallow faith of the Israelites who once praised and worshiped God fervently is revealed. It is said that God tests their hearts through this water, but Israel's faith has not yet passed God's test. As a believer, you should check what words are coming out of your mouth.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13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J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한 구인의 결정 IIIIS Week	
	)

# 13

# 성숙한 크리스천

# Matured Christian

정기영목사 (새빛 연합감리교회)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늘 큰소리가 주일마다 납니다. 네 편, 내 편이 갈라져 싸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젖 먹는 어린이와 같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자고 배설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젖을 먹으면서 체중도 늘어나고 지혜도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유식도 하고 점점 딱딱한 음식도 먹기 시작하면서 성장합니다. 엄마를 보고 웃기도 하고 1년이 지나면 걷기도 합니다. 재롱을 부리면서 온식구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제 유치원도 입학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결혼도 해서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면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어른인데, 인생의 경험도 많고 배움도 많은데,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서로 다툽니다. 이런 교회를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신체적으로는 성숙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실천하여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배려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

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은 동역자들 (God's servants)입니다. 누가 잘 나고 못 나고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떤 이는 심는 이로, 어떤 이는 물 주는 이로, 각각 다른 사명을 부여받아 하나 님의 일을 맡은 동역자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동역자들이 힘써 섬기고 일해야 할 받과. 지어나가야 할 건물이 고린도 교회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미숙한 신자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 사람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파벌을 일삼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아직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신령한 영 의 세계를 모른 사람들이지요. 아직 젖을 떼지 못해 딱딱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젖먹이 신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들은 세상의 판단 기준을 버리지 못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실제로는 사람을 섬기면서 각종 파당을 만들어 교회를 어지 럽합니다.

이른바 엘리트주의, 교회의 고질적인 질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 하나를 자랑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교만이지요. 영적인 은사를 자랑하든지, 지식을 자랑하든지, 도덕성을 자랑하든지, 사회봉사를 자랑하든지, 여하한 형태의 영적인 엘리트주의도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 신앙 성숙의 열매는 공동체 정신에 있습니다. 모든 사사로운 마음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일치와 평화를 이루는 것, 여기에 신앙 성숙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성숙해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합니다. 젖먹이 신앙에서 성숙한 어른 신앙으로 자라나가야합니다.

월요일·Mon

2022 March

# 엘림에서 신 광야로

From Elim to the Wilderness of Sin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지 딱 한 달이 지난 때, 그들은 엘림에서 신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를 걸어온 지난 한 달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 먹을 것까지 떨어지자 백성들은 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 ♬ 새393장(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 <sub>묵상</sub>·출애굽기 16:6-15

통독·출애굽기 16장

- 6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 7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 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 8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 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 9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 10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속에 나타나더라
-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12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 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 13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위에 있더니
- 14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 15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 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 Reading Insight «

Just one month after the Israelites left Egypt, they were on their way from Elim to the Wilderness of Sin. The past month must have been very difficult for them as they walked through the wilderness with hot days and cold nights. But when they run out of food, the people complain again. God promises to provide manna and quail.

₱ Hymn393 - Great is Thy Faithfulness

#### Meditation • Exodus 16:6-15

Reading Plan • Exodus 16

- 6 So Moses and Aaron said to all the people of Israel, "At evening you shall know that it was the LORD who brought you out of the land of Egypt,
- 7 and in the morning you shall see the glory of the LORD, because he has heard your grumbling against the LORD. For what are we, that you grumble against us?"
- 8 And Moses said, "When the LORD gives you in the evening meat to eat and in the morning bread to the full, because the LORD has heard your grumbling that you grumble against him--what are we? Your grumbling is not against us but against the LORD."
- 9 Then Moses said to Aaron, "Say to the whole congregation of the people of Israel, 'Come near before the LORD, for he has heard your grumbling."
- 10 And as soon as Aaron spoke to the whole congregation of the people of Israel, they looked toward the wilderness, and behold, the glory of the LORD appeared in the cloud.
- 11 And the LORD said to Moses,
- 12"I have heard the grumbling of the people of Israel. Say to them, 'At twilight you shall eat meat, and in the morning you shall be filled with bread. Then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your God."
- 13 In the evening quail came up and covered the camp, and in the morning dew lay around the camp.
- 14 And when the dew had gone up, there was on the face of the wilderness a fine, flake-like thing, fine as frost on the ground.
- 15 When the people of Israel saw it, they said to one another, "What is it?" For they did not know what it was. And Moses said to them, "It is the bread that the LORD has given you to eat.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나는 매일의 영적인 양식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What are you doing to seek daily spiritual food?

나는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 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 습니까?

Are you living your life enjoying the grace of God that is newly given to you every day?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워싱톤감리교회, 이승우(MD) 하늘비전교회, 장재웅(MD)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일용할 양식 Daily bread

하나님은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백성들의 불평을 듣고 만나와 메추라 기를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다음날부터, 광 야 생활 사십 년간 만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매일 아침, 하루에 필요한 양의 만나를 거두고, 엿새 째에는 안식일 것까지 이틀 분량의 만나를 거두면 되었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남들보다 더 가져다가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상하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가 있나 없나 찾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백성들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날임을 기억하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도록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생명의 양식, 오늘의은혜를 구하고, 거두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God promised to provide manna and quail after hearing the complaints of the people that there was not enough food. From the day after this promise was made, manna fell on them every day for forty years in the wilderness without missing a single day. Every morning, the people had to gather the amount of manna they needed for one day, and on the sixth day they had to gather two days' worth of manna until the Sabbath. There were some people who did not follow the direction of God and gathered more than others, but that portion spoiled, smelled, and could not be eaten. Some people went out on the Sabbath to find out if there was manna, but could not find any.

By sending manna down in the wilderness, God taught them who God is and how to trust Him in their daily lives. As they gathered manna every morning, the people learned to live without greed, remembering that today is also a day to live by God's grace. When Jesus taught prayer, he also told us to ask for our daily bread. I hope that you will live by seeking and reaping today's bread of life, today's grace, given every day.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화요일·Tue

2022 Manah

# 신 광야에서 르비딤으로

From the Wilderness of Sin to Rephidim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다가 반석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투를 하는데, 모세는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백성들의 승리를 돕습 니다. 이들이 광야에 진 치고 있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하 여 지도자를 세워 함께 치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 ♬ 새360장(통402장) 행군 나팔 소리에

## <sub>묵상</sub>·출애굽기 17:8-16

통독·출애굽기 17-18장

- 8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 9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 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 10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 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 막렉이 이기더니
- 12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 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 13 여호수아가칼날로 아말렉과 그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 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 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 15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 16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 Reading Insight .....

The Israelites complained about the lack of water in Rephidim and then experienced a miracle of water coming out of a rock. At this time, Amalek invades and the battle begins. Moses raises his hand and prays fervently to help the Israelites win. While they are encamped in the wilderness, Jethro, Moses' father-in-law, visits and encourages him to appoint leaders to rule with Moses.

☐ Hymn360 - Bugle Calls are Ringing Out

Meditation • Exodus 17:8-16

Reading Plan • Exodus 17-18

- 8 Then Amalek came and fought with Israel at Rephidim.
- 9 So Moses said to Joshua, "Choose for us men, and go out and fight with Amalek. Tomorrow I will stand on the top of the hill with the staff of God in my hand."
- 10 So Joshua did as Moses told him, and fought with Amalek, while Moses, Aaron, and Hur went up to the top of the hill.
- 11 Whenever Moses held up his hand, Israel prevailed, and whenever he lowered his hand, Amalek prevailed.
- 12 But Moses' hands grew weary, so they took a stone and put it under him, and he sat on it, while Aaron and Hur held up his hands, one on one side, and the other on the other side. So his hands were steady until the going down of the sun.
- 13 And Joshua overwhelmed Amalek and his people with the sword.
- 14 Then the LORD said to Moses, "Write this as a memorial in a book and recite it in the ears of Joshua, that I will utterly blot out the memory of Amalek from under heaven."
- 15 And Moses built an altar and called the name of it, The LORD Is My Banner,
- 16 saying, "A hand upon the throne of the LORD! The LORD will have war with Amalek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 니까?

What do you think is the power of prayer?

자신과 가정, 교회와 일터, 그리고 세 상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Do you pray every day for yourself, your family, your church, your workplace, and the world?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무지개연합감리교회, 조태섭(ME)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 김대기(MI) 목회자를 위한 기도

# 기도의 능력 The power of prayer

생각지도 못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 온 것입니다. 사백 년이 넘도록 노예로만 살았지 군사 훈련은 받아본 적도 없는 이스 라엘이 갑자기 아말렉과 싸워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과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고, 자신은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가 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힘이 들어 손을 내리면 아군이 밀리기에, 이스라엘이 이길 때까지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 을 함께 들어 올렸습니다.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힘이 들어도 쉴 수 없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건입니다. 기도가 힘들기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녀들과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닛시, "하나님이 전쟁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그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An unexpected war broke out. Amalek attacked. Israel, who had lived as a slave for over four hundred years and never received any military training, suddenly had to fight the Amalekites. Moses tells Joshua to go out with the people and fight Amalek. Moses then takes his staff and goes up the mountain, raises his hands, and prays fervently. When Moses lowers his hand, his armies are pushed back, so Aaron and Hur stand by Moses' side and together raise Moses' arms until Israel prevails.

Prayer is not easy. It's hard work. But even if prayer is hard, we cannot rest because we know the power of prayer. In order to live, to win spiritual warfare, prayer is not an option. It is a requirement. It is very good to have prayer partners to pray together because praying is difficult.

We hope that we will join forces to pray for our families, for our church, for our children, and for the world. So, like Jehovah Nissi, "God made me victorious in the battle," I hope that we can live by confessing, "I cried out earnestly, and God helped me and gave me victory."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수요일·Wed

2022 Manah

#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로

From Rephidim to the Sinai Wilderness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들을 향한 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과 다른 생활의 규례들입니다.

## ♬ 새204장(통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 묵상·출애굽기 19:3-12

통독·출애굽기 19-20장

- 3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 라엘자손들에게 말하라
- 4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 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 았느니라
- 5세계가다내게속하였나니너희가내말을잘듣고내언 약을지키면너희는모든민족중에서내소유가되겠고
-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 7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 8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 께 저하매
- 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 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 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 11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 있이니
- 12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 Reading Insight <>>

When the Israelites came to the wilderness of Sinai, God called Moses from Mount Sinai and gave the commandments to the people. These are the Ten Commandments and other rules of life that we are familiar with.

☐ Hymn204 - Those Who Hear and Do the Word

Meditation • Exodus 19:3-12

Reading Plan • Exodus 19-20

- <sup>3</sup> while Moses went up to God. The LORD called to him out of the mountain, saying, "Thus you shall say to the house of Jacob, and tell the people of Israel:
- 4 You yourselves have seen what I did to the Egyptians, and how I bore you on eagles' wings and brought you to myself.
- 5 Now therefore, if you will indeed obey my voice and keep my covenant, you sha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among all peoples, for all the earth is mine;
- 6 and you shall be to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These are the words that you shall speak to the people of Israel "
- <sup>7</sup> So Moses came and called the elders of the people and set before them all these words that the LORD had commanded him.
- 8 All the people answered together and said, "All that the LORD has spoken we will do." And Moses reported the words of the people to the LORD.
- <sup>9</sup> And the LORD said to Moses, "Behold, I am coming to you in a thick cloud, that the people may hear when I speak with you, and may also believe you forever." When Moses told the words of the people to the LORD,
- 10 the LORD said to Moses, "Go to the people and consecrate them today and tomorrow, and let them wash their garments
- 11 and be ready for the third day. For on the third day the LORD will come down on Mount Sinai in the sight of all the people.
- 12 And you shall set limits for the people all around, saying, 'Take care not to go up into the mountain or touch the edge of it. Whoever touches the mountain shall be put to death.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How do you feel about the Ten Commandments given by God?

법을 준수하는 것이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것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experienced a time when obeying the law was not binding but liberating?

####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김응용(MI)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 유준식(MI)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새로운 정체성 New identity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한 민족을 해방하고 구원하신 후에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애굽이라는 죄된 땅을 떠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새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법칙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법이나 규칙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얽매이는 것 같고 부담스러워하지만, 오히려 법과 규칙은 사람들을 편안하게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도로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 많은 교통 법규들을 다 배우고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게 운행하기 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잘 살게 하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가장 잘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율법은 짐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시편 19:7-8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After liberating and saving a nation from slavery, God is now making them His people. In order to leave the sinful land of Egypt and reside in the new land as a people with new identities, God gives them various laws. When we hear the word "laws" or "rules", we feel bound and burdened, but laws and rules have the purpose of making people feel comfortable and safe.

The reason why you must learn all the traffic laws before driving a car is to protect the lives of everyone, including drivers, and to drive safely and orderly. The same is true with God's laws. When God gave the law, it was God's heart to help his people live well and stay safe. The people of God will live best if they listen to and obey God's Word. Therefore, the law that the Israelites receive is not a burden, but a blessing.

There is no other secret for living well in a world like the wilderness. If you listen carefully to God's Word and obey it, God will grant you wonderful blessings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refreshing the soul. The statutes of the Lord are trustworthy, making wise the simple. The precepts of the Lord are right, giving joy to the heart. The commands of the Lord are radiant, giving light to the eyes" (Ps 19:7–8).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목요일·Thu

17

2022 March

# 일상 생활의 규례들

Rules of everyday life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주신 원칙들을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종에 대한 법, 상해에 대한 법, 손해배상에 대한 법,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하는 법 등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의 세부적인 지침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 ♬ 새289장(통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 <sub>묵상</sub>·출애굽기 22:21-31

통독·출애굽기 21**-**22장

- 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 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 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 24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 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 를 받지 말 것이며
-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 27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 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 가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 28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 하지 말지니라
- 29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 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 30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 Reading Insight «

God teaches us how to specifically apply the principles given in the Ten Commandments in our daily lives. He gives detailed guidelines in various situations that people may encounter in their lives, such as the law on servants, the law on injury, the law on compensation, and how to treat the socially disadvantaged.

☐ Hymn289 - What a Wonderful Change

## Meditation • Exodus 22:21-31

Reading Plan • Exodus 21-22

- 21 "You shall not wrong a sojourner or oppress him, for you were sojourners in the land of Egypt.
- 22 You shall not mistreat any widow or fatherless child.
- <sup>23</sup> If you do mistreat them, and they cry out to me, I will surely hear their cry,
- 24 and my wrath will burn, and I will kill you with the sword, and your wives shall become widows and your children fatherless
- 25 "If you lend money to any of my people with you who is poor, you shall not be like a moneylender to him, and you shall not exact interest from him.
- 26 If ever you take your neighbor's cloak in pledge, you shall return it to him before the sun goes down,
- **27** for that is his only covering, and it is his cloak for his body; in what else shall he sleep? And if he cries to me, I will hear, for I am compassionate.
- **28** "You shall not revile God, nor curse a ruler of your people.
- 29 "You shall not delay to offer from the fullness of your harvest and from the outflow of your presses. The firstborn of your sons you shall give to me.
- **30** You shall do the same with your oxen and with your sheep: seven days it shall be with its mother; on the eighth day you shall give it to me.
- 31 "You shall be consecrated to me. Therefore you shall not eat any flesh that is torn by beasts in the field; you shall throw it to the dogs.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일상에서의 거룩은 어떤 모습일까요? What does holiness look like in your daily life?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Can you say that you are living as a holy person before God?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 손용억(MN)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 윤국진(MN)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거룩한 사람 My holy people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많은 생활의 법과 규칙들이 오늘 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정신과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 공의와 질서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법규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22:31).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것처럼 부담스럽고 거북한 느낌을 갖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데, 단지 교회에 다니니까 다르다는 게 아니라, 매일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들에서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기에 다르다는 말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여러 일들을 통해 성도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룩해 보이는 것을 넘어, 매일의 생활에서 거룩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Many of the laws and rules of life given to the Israelites long ago do not apply to us today. However, they contain the spirit and principles that God wants to teach. They contain the will of God such as love and mercy, justice, and peace. Furthermore, by observing these laws, God is saying that God's people must become holy people. "You are to be my holy people" (22:31). When we hear the word "holiness," we feel burdened and uncomfortable, as if we made a promise that we could not keep, but this is something that anyone who wants to be like God must do.

Holiness means to be set apart. It means to be different. We are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 world, not just because we go to church, but because we speak and act differently in specific daily life situations. Holiness matters in how to treat people who are weaker than you, what to do when you hurt others, how to compensate for damage, and many other things that can happen in your life. Beyond being holy in the church, living holy in our daily life is the holiness that God desires.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日の回・Fri 18

2022 March

# 유대인의 절기

Jewish Feast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시면서, 특히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유월 절과 맥추절, 수장절의 절기들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사 십 일을 머물게 됩니다.

♬ 새455장(통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 묵상·출애굽기 23:10-19

통독·출애굽기 23-24장

- 10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 11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 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워과 감람워도 그리할지니라
- 12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 13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 14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 15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 오지 말지니라
- 16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 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 17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 18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 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 19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 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 Reading Insight .....

God explained how His people should live, especially commanding them to keep the Sabbath and Sabbath years. He told them to celebrate the feasts of Passover, Harvest, and Ingathering every year. Moses went up to the mountain and stayed forty days to receive the stone tablets on which the Word of God was written

☐ Hymn455 – We Shall be Like Him

Meditation • Exodus 23:10-19

Reading Plan • Exodus 23-24

- 10 "For six years you shall sow your land and gather in its yield,
- 11 but the seventh year you shall let it rest and lie fallow, that the poor of your people may eat; and what they leave the beasts of the field may eat. You shall do likewise with your vineyard, and with your olive orchard.
- 12 "Six days you shall do your work, but on the seventh day you shall rest; that your ox and your donkey may have rest, and the son of your servant woman, and the alien, may be refreshed.
- 13 "Pay attention to all that I have said to you, and make no mention of the names of other gods, nor let it be heard on your lips.
- 14 "Three times in the year you shall keep a feast to me
- 15 You shall keep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As I commanded you, you shall eat unleavened bread for seven days at the appointed time in the month of Abib, for in it you came out of Egypt. None shall appear before me empty-handed.
- 16 You shall keep the Feast of Harvest, of the firstfruits of your labor, of what you sow in the field. You shall keep the Feast of Ingathering at the end of the year, when you gather in from the field the fruit of your labor.
- 17 Three times in the year shall all your males appear before the Lord GOD.
- **18** "You shall not offer the blood of my sacrifice with anything leavened, or let the fat of my feast remain until the morning.
- 19 "The best of the firstfruits of your ground you shall bring into the house of the LORD your God. "You shall not boil a young goat in its mother's milk.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특별한 날은 언제입니까? When is a special day for you to remember and commemorate God?

사순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방법은 무 엇이 있습니까?

During Lent, how do you remember God and give thanks for His grace and love?

####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 백성범(MN)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명균(MO)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절기 Feasts

연인들이나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에는 생일이나 기념일을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을 꼭 기억해 두었다가, 선물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확인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개인이나 가족들의 기념일을 넘어, 나라나 민족이 함께 기념하는 날을 절기라고 합니다. 절기에는 사람들이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그날이 가진 의미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시 정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켜야 할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절기들을 정해주시고 그날에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지속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부활절을 기다리며 사순절 절 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절기 동안, 내 마음이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 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가야 하겠습니다.

Some dating and married couples celebrate birthdays and anniversaries. I always remember those days of giving gifts, eating delicious things, and going on trips. Why? I like to remember the special meaning of that day. People also do it to reaffirm their love for each other. In addition to the anniversary of individuals and families, a day celebrated by a nation is called a festival. During the season, people celebrate together, remembering the meaning of the day and refreshing their mind.

The people of Israel also had feasts to observe. God set special feasts for them and told them to worship God without working on that day. This is because it is a day to thank God for His grace and to reflect on how we should live for God.

By keeping the feasts, they were able to live a life of remembering and serving God consistently and practically. Now we are also in the season of Lent, looking forward to Easter. During the season, our hearts should hold God closer, and we should love God more and grow into a holy people.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토요일·Sat

19

2022 March

# 성막에 대한 규정

Statues for the tabernacle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16장에 걸쳐서 성막의 제작과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마포로 담을 두른 성막 뜰에는 제물을 잡고 태우는 번제단과 제사장이 물로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네 겹 가죽으로 덮은 집이 있는데 이곳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떡을 놓는 진설병상, 등불을 켜는 등잔대, 그리고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 ♬ 새210장(통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 묵상·출애굽기 25:1-9

통독·출애굽기 25장

- 1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 3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은과 놋과
- 4청색자색홍색실과가는베실과염소털과
- 5붉은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 6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 7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 8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 9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 Reading Insight .....

From Exodus 25 to 40, the story of the construction and completion of the tabernacle is recorded in 16 chapters. In the courtyard of the tabernacle surrounded by linen cloth, there is an altar for burnt offerings and a laver for the priest to wash with water. There is also a house covered with four layers of skin, which is divided into the Holy and Most Holy. Inside the sanctuary, there is a table for the display of bread, a lampstand for lighting a lamp, and an altar of incense for burning incense. The Most Holy is a place that the high priest can enter only once a year, and the Ark of the Covenant is placed there.

☐ Hymn210 - Glorious Things of Thee are Spoken

Meditation • Exodus 25:1-9

Reading Plan • Exodus 25

- <sup>1</sup>The LORD said to Moses,
- 2 "Speak to the people of Israel, that they take for me a contribution. From every man whose heart moves him you shall receive the contribution for me.
- <sup>3</sup> And this is the contribution that you shall receive from them: gold, silver, and bronze,
- 4 blue and purple and scarlet yarns and fine twined linen, goats' hair,
- 5 tanned rams' skins, goatskins, acacia wood,
- 6 oil for the lamps, spices for the anointing oil and for the fragrant incense,
- **7** onyx stones, and stones for setting, for the ephod and for the breastpiece.
- 8 And let them make me a sanctuary, that I may dwell in their midst.
- <sup>9</sup> Exactly as I show you concerning the pattern of the tabernacle, and of all its furniture, so you shall make it.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 습니까?

Why did God tell them to build the tabernacle?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 아가고 있습니까?

Are you living as a holy temple of God?

####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 서준석(NC)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 이우일(NC)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하나님 나라 백성 God's people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시험을 보기 위해 이민자들은 미국의 법과 미국 역사, 미국의 정신 등을 공부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시민들이 사는 방식을 알고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살 때 그들은 애굽의 법에 따라 살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며살았으며, 애굽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은 아직도 조금만 힘들어지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애굽이라는 나라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이제 성막을지으라고 하심으로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주시기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임을 깨닫는대서 오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중에 함께 거하시는 집입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을 이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져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To be tested for citizenship, immigrants must study American law, American history, and the American spirit because in America they have to know and follow the way Americans live. When the Israelites lived in Egypt, they lived according to the laws of Egypt, observed the worship of the Egyptian gods, and learned from the values and way of life of Egypt. But now the Israelites are leaving Egypt and going to a new land. They are called to be the people of the kingdom of God.

Although their bodies have left Egypt, they are still so accustomed to the country of Egypt that they say it is better to go back to Egypt after encountering a little trouble. To such a people, God has given the law, and now He wants to establish their identity as a new nation by building the tabernacle. This is because the most important identity of the people of God's kingdom comes from realizing that they must dwell with God. The tabernacle is the house where God dwells among them. At the tabernacle, the Israelites will meet God.

Now, we too, as people of the kingdom of God, must be people with God. God must be in me and lead my life. I hope that this identity will become clear and we will become the holy temple of God who always is with God.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20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J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한 구인의 결정 IIIIS Week	
	)

# 한영혼을 주님께로… 한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나웅철목사(콜롬비아KUMC)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상황들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사역을 흔들어 놓았고, 점점 위축되게 하고, 약해지게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급변하는 사회와 우리 삶의 많은 변화들에 적응하며, 어려움들을 극복해가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공동체 신앙생활이 약해지게 되면서, 서로 함께 교회사역을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전도와 선교사역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힘든 때이고, 교회의 사역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가 더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를 보면,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신앙을 지켜가기힘든 때에,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 하나 되어함께 모여기도하며, 흩어져 전도하여, 점점 복음이 이방 나라에게까지 확장되어 간 것을 보게됩니다. 또한 유럽의 흑사병의 전염병 시대에 새로운 믿음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져서, 개신교회가 탄생되었고, 18세기에 영국 국교회에서 감리교회가 탄생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위기의 상황속에 개혁과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됩니다.

현재 교회의 위기를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으로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어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에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사역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제자들 또한 복음을 전하므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주신 유연과 같은 말씀 또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하면 좋다고, 제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 내가 선택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신앙생활들을 더 잘하겠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로 먼저 구원받은 이유, 주님의 뜻하심과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다는 것을 깨닫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다른 질문은 아니어도 이 질문은 꼭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몇 명이나 구원하고 왔느냐? 그때 우리는 주님께 대답할 준비를 지금 해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고, 믿음 생활이 약해지게 되는 것 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신앙생활 잘못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 겠나?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워숨어지냈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더욱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진 것을 봅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은 내가 신앙으로 잘 준비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주님께 맡기며 더 기도하게 되고, 성령께서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스로가 먼저 신앙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고, 성숙되게 합니다. 현재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한계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신앙생활했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의 지상명령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그 자리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시고,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이 위축돼 있지만, 무엇보다 잃어버린 한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한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세울 때에 교회는 다시 새힘을 얻고, 새로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기회가 되어 연합감리교회의 미션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한 영혼이 돌아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세상을 변화시길수 있는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 Ваер·Mon

2022 March

# 성막의 구성

The layout of the tabernacle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출애굽기 26장에는 성막의 덮개, 성막의 벽, 그리고 휘장을 만들고 성물을 놓는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겹으로 천과 가죽을 덮음으로 성막 건물의 덮개를 만들고, 조각목에 금을 입힌 널판으로 성막의 벽을 세웠습니다. 성막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것은 네 개의 기둥들과 기둥에 걸린 휘장으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 ♬ 새425장(통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sub>묵상</sub>·출애굽기 26:30-37

통독·출애굽기 26장

- 30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 31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 32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 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 33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 34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 35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 36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 37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 Reading Insight ....

Exodus 26 describes the tent coverings of the tabernacle and the walls of the tabernacle, how to make the veil, and where to place the holy articles. Four layers of cloth and leather were used to make the cover of the tabernacle building, and the walls of the tabernacle were erected with wood carvings and gilded boards. The inside of the tabernacle was divided into the Holy and Most Holy, separated by four pillars and a veil hanging from the pillars.

☐ Hymn425 - Have Thine own way, Lord

Meditation • Exodus 26:30-37

Reading Plan • Exodus 26

- **30** Then you shall erect the tabernacle according to the plan for it that you were shown on the mountain.
- 31 "And you shall make a veil of blue and purple and scarlet yarns and fine twined linen. It shall be made with cherubim skillfully worked into it.
- **32** And you shall hang it on four pillars of acacia overlaid with gold, with hooks of gold, on four bases of silver.
- 33 And you shall hang the veil from the clasps, and bring the ark of the testimony in there within the veil. And the veil shall separate for you the Holy Place from the Most Holy.
- **34** You shall put the mercy seat on the ark of the testimony in the Most Holy Place.
- 35 And you shall set the table outside the veil, and the lampstand on the south side of the tabernacle opposite the table, and you shall put the table on the north side.
- **36** "You shall make a screen for the entrance of the tent, of blue and purple and scarlet yarns and fine twined linen, embroidered with needlework
- **37** And you shall make for the screen five pillars of acacia, and overlay them with gold. Their hooks shall be of gold, and you shall cast five bases of bronze for them.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분명한 삶의 지침을 알려 주시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 십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 니까?

God gives clear guidelines for life and tells us to follow them. Are you living by the Word?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임종선(NH) 가득한교회, 이강(NJ)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보인 양식대로"

"According to the pattern you were shown on"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려고 할 때,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었는데 아무거나 라고 말하면 참 어렵습니다. 내 맘대로 정하자니 혹여나 마음에 들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자꾸 물어보자니 번거롭기도 합니다. 차라리 무얼 먹고 싶다고 정확히 말해주면 훨씬 쉽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 성막에 대한 자세하고도 긴 설명을 읽으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든 건축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궁금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나 명확하게 일 러주셨으니 다 해낼 수 있었겠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라 하시고는, "아무렇게나 지어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체적인 구조와 크기, 재료까지 세밀하고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30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대로 했으면 어려웠을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르면 되었으니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명확하고 세세하게 주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쉽게 풀어나가는 방법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When I go out to eat with a friend, I ask her what she wants to eat. If she says "anything," I have a hard time. If I choose to order what I want, I'm worried that she might not like it, and it's cumbersome to keep asking questions. It's much easier for me if she tells me exactly what she'd rather eat. I have been contemplating while reading the detailed and lengthy description of the tabernacle in the book of Exodus. I wondered how the people of Israel, who were slaves in a foreign country, were able to handle such difficult construction, but I realized that the construction could be accomplished because God had clearly instructed them how to.

When God told them to build the tabernacle, He did not say, "Build it in whatever way you want." God explained the overall structure, size, and materials in detail and accurately, and God commanded, "Set up this Tabernacle according to the pattern you were shown on the mountain" (26:30). Moses and the Israelites just had to obey.

What would have been difficult if they had followed their own plans and thoughts became easy because they followed God's guidance. God's Word to us is also given clearly and in detail. We should know that living according to the Word is an easy way to solve the complex problems of life.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sup>ক্ষন</sup>্থ নিজ্

2022 March

# 번제단과 성막뜰

The Altar of Burnt
Offering and
the Courtyard
of the Tabernacle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출애굽기 27장에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성막의 뜰을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뜰의 동쪽에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는데 아무 무늬 없는 휘장을 걸어 놓았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항상 살펴야 했습니다.

## ♬ 새323장(통355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 <sub>묵상</sub>·출애굽기 27:1-8

통독·출애굽기 27장

- 1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 <sup>2</sup>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 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 3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 4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 5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 게 할지며
- 6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 7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메게 할지며
- 8세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 Reading Insight

Exodus 27 records the way to build the altar of burnt offering in the courtyard of the tabernacle and the courtyard itself. On the east side of the courtyard was the entrance to the tabernacle, on which a plain veil was hung. The priests had to keep an eye on the lampstand in the sanctuary so that the fire did not go out.

√ Hymn323 - Call'd of God, We Honor the Call

Meditation • Exodus 27:1-8

Reading Plan • Exodus 27

- 1 "You shall make the altar of acacia wood, five cubits long and five cubits broad. The altar shall be square, and its height shall be three cubits.
- <sup>2</sup> And you shall make horns for it on its four corners; its horns shall be of one piece with it, and you shall overlay it with bronze.
- <sup>3</sup> You shall make pots for it to receive its ashes, and shovels and basins and forks and fire pans. You shall make all its utensils of bronze.
- 4 You shall also make for it a grating, a network of bronze, and on the net you shall make four bronze rings at its four corners.
- <sup>5</sup> And you shall set it under the ledge of the altar so that the net extends halfway down the altar.
- 6 And you shall make poles for the altar, poles of acacia wood, and overlay them with bronze.
- **7** And the poles shall be put through the rings, so that the poles are on the two sides of the altar when it is carried.
- 8 You shall make it hollow, with boards. As it has been shown you on the mountain, so shall it be made.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나는, 내 삶의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Have you received Jesus, who came as the light to banish the darkness of your life?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What are you doing to keep your faith intact?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갈보리연합감리교회, 왕태건(NJ)

갈보리연합감리교회, 왕태건(NJ) 그레이스-베델연합감리교회, 장학범(NJ) 목회자를 위한 기도

# 꺼지지 않는 등불 Keep the lamps burning continually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가 놓여 있었는데, 어두운 성소 안을 비추기 위해 등잔대에 등불을 켜 놓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등불을,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 어두움에서 밝은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 있는 이 등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정성과 노력이 필요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등불이 "끊이지 않게"(20절) 켜져 있어야 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펴야"21절)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여러 임무로 바쁜 중에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 위해 부단히 마음을 쓰고 정성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위해서도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맞이했어도, 내 안에서 그 빛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매일 성실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의 죄 때문에 어두워 지지는 않았는지, 태울 기름이 모자라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 러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Inside the sanctuary were the altar of incense, the show table, and the lampstand. To illuminate the dark inside the sanctuary, a lamp had to be lit. We understand this lamp to symbolize Jesus, who came as the light that dispels the darkness of the world. That is why we need to receive the light of Jesus and walk out of the darkness into the light. Furthermore, we must live as the light for the world. We must remember also that it took great devotion and effort for the priests to manage the lamp in the sanctuary.

Priests had to "keep the lamps burning" (27:20) and "keep the lamps burning before the Lord from evening till morning" (27:21). The priests must have put their hearts and minds into keeping the lamps from going out even when they were busy with their various duties. It also requires devotion and effort to keep our faith.

Even though we have welcomed Jesus as the light, we must faithfully take care of that light every day so that the light does not fade in us. We need to check whether it has not been extinguished by any sin in our hearts and that there is enough oil to burn. To that end, we must always draw near to the Word of God and move forward with prayer.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23

2022 March

# 제사장의 의복

Clothing for the Priests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하시며,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 새287장(통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 묵상·출애굽기 28:1-4

통독·출애굽기 28장

- 1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 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 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 장 직부을 행하게 하되
- <sup>2</sup>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 답게 핰지니
- 3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 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 4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 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 하게 하라

#### Reading Insight

Exodus 28 records the rules related to the priest's clothing. God ordered Aaron and his sons to serve as priests and artisans were to make holy garments for them.

☐ Hymn287 - 'Tis for You and Me

Meditation • Exodus 28:1-4

Reading Plan • Exodus 28

- 1 "Then bring near to you Aaron your brother, and his sons with him, from among the people of Israel, to serve me as priests--Aaron and Aaron's sons, Nadab and Abihu, Eleazar and Ithamar.
- <sup>2</sup> And you shall make holy garments for Aaron your brother, for glory and for beauty.
- <sup>3</sup> You shall speak to all the skillful, whom I have filled with a spirit of skill, that they make Aaron's garments to consecrate him for my priesthood.
- 4 These are the garments that they shall make: a breastpiece, an ephod, a robe, a coat of checker work, a turban, and a sash. They shall make holy garments for Aaron your brother and his sons to serve me as priests.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제사장으로서,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What does it mean to be clothed with Christ? As a priest, what kind of clothes are you wearing?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 박태열(NJ) 뉴그레이스교회, 전영철(NJ)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거룩한 옷 Holy Garments

아론과 아들들은 왜 제사장으로 뽑혔을까요? 그들이 대단히 뛰어나고 좋은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옷을 지어 입어야 했습니다. 그 옷은 일반 백성들이 입는 옷과 달리 특별하게 제작된 옷이었습니다. 금실을 섞어서 만든 옷을 입고, 보석이 박힌 패를 차고, 금으로 만든 관을 쓴 제사장의 모습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예복을 만들어 입도록 하신 이유는, 제사장이 수행하는 일이 얼마나 성스러운 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경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써 죄가 가리워져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됨을 보여주기위함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리웁니다. 제사장 된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요?

이제 더 이상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러한 제사장의 복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성도는 어떤 외형적인 옷으로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신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4).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Why were Aaron and his sons chosen as priests? Not because they were very smart and good people, but because God called them. However, in order for those who are still weak and lacking to fulfill the holy priesthood that God has entrusted to them, they had to make and wear holy clothes as God instructed. The clothes were specially made, unlike the clothes worn by ordinary people. How glorious and beautiful it must have been to see a priest dressed in clothes made of mixed gold thread, wearing a plaque studded with jewels, and wearing a gold crown.

The reason God made these special robes to wear is to show how sacred the priest's work is and to help people realize how precious the God whom they worship is. It is also to show that by wearing holy clothes, sins are covered and we can go before a holy God. Now we are all called holy priests before God. As priests, what kind of clothes should we wear before God?

Today these priestly garments as mentioned in the Old Testament are no longer needed. Today's believers do not distinguish themselves by any external clothing. Instead, we must put on our Lord Jesus Christ alone.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alone, and do not devote yourself to the lusts of the flesh" (Rom. 13:14). By the grace of the blood of Christ, we can all come before God as a royal priest.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24**

2022 March

# 제사장 위임식

Dedication of the Priests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출애굽기 29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위임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준비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와 물로 씻기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머리에 거룩한 관유를 부음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 ♬ 새430장(통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 묵상·출애굽기 29:1-9

통독·출애굽기 29장

- 1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 <sup>2</sup>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 3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 4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 5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 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 6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 7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 8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 9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합지니라

#### Reading Insight ·····

Exodus 29 records the story of the ordination of the priests. The ordination ceremony proceeded with the preparation of the sacrifices as God had commanded, bringing Aaron and his sons, washing them with water, putting on the priestly garments, and pouring holy anointing oil on their heads. The offering of sacrifices was executed in the manner God commanded.

☐ Hymn430 - 'Tis so Sweet to Walk with Jesus

Meditation • Exodus 29:1-9

Reading Plan • Exodus 29

- 1 "Now this is what you shall do to them to consecrate them, that they may serve me as priests. Take one bull of the herd and two rams without blemish.
- 2 and unleavened bread, unleavened cakes mixed with oil, and unleavened wafers smeared with oil. You shall make them of fine wheat flour
- <sup>3</sup> You shall put them in one basket and bring them in the basket, and bring the bull and the two rams.
- 4 You shall bring Aaron and his sons to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and wash them with water.
- <sup>5</sup> Then you shall take the garments, and put on Aaron the coat and the robe of the ephod, and the ephod, and the breast-piece, and gird him with the skillfully woven band of the ephod.
- 6 And you shall set the turban on his head and put the holy crown on the turban.
- 7 You shall take the anointing oil and pour it on his head and anoint him
- 8 Then you shall bring his sons and put coats on them,
- <sup>9</sup> and you shall gird Aaron and his sons with sashes and bind caps on them. And the priesthood shall be theirs by a statute forever. Thus you shall ordain Aaron and his sons.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소망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이 가장 귀한 축복임을 알고 있습니까? God's hope was to dwell among the Israelites. Likewise, God wants to be with us now. Do you have the same wish? Above all else, do you know that fellowship in walking with God is the most precious blessing?

####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져지연합교회, 고한승(NJ)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이정애(NJ)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함께 하심 Dwell among them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격한 규정에 따라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인 가요? 그들은 아직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천막을 쳤다 거뒀다 하며 이동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 자리도 잡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자리가 좀 잡히면 건축을 하거나 옷을 만들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사정을 봐주지 않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백성들과 교제하고 동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면서 백성들이 드 리는 제사를 통해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만나는 것,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요. 아침 일찍 만나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하는 사이에 있어야 할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만나고 싶어 하시고, 언제나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46절)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이기에, 다른 무엇보다 먼저,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God commanded the Israelites to build the tabernacle according to strict regulations and had the priests offer sacrifices. What was the situation of the Israelites then? They are still wandering in the wilderness. They have not yet settled down and are wandering around, putting up or dismantling tents. But, why is God demanding that Israel, who has not yet settled down, build the tabernacle and offer sacrifices? Wouldn't it have been much easier to build the tabernacle or make clothes after they settle down? Did God not care about their situation?

The reason God told them to build the tabernacle and offer sacrifices was because He wanted them to have fellowship and walk with Him. While dwelling in the tabernacle, God wanted to meet the people through the sacrifices offered by them and be with them. What do two people in love want the most? Maybe they want to meet each other and be together? They like to meet early in the morning and even if they stay together all day, they don't want to part. Isn't that how it is supposed to be between those in love?

Because God loves us, He always wants to see us and be with us. God has clearly declared, "I am the Lord their God, who brought them out of Egypt so that I might dwell among them" (29:46). Because being together is the greatest blessing, He said, first of all, to build the tabernacle and ordain priests. We, too, should live under the grace of God as saints together with God.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25

2022 March

# 안식일 준수

Sabbath observance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하나님은 분향단과 물두멍 제작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의 작업을 담당할 사람으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친히 지명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이일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 ♬ 새43장(통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 <sub>묵상</sub>·출애굽기 30:12−18

통독·출애굽기 30-31장

- 12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 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 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 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 13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 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 릴지며
- 14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 께 드리되
- 15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 지 막지며
- 16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 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18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 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 을 담으라

#### Reading Insight ...

God instructed them how to make the incense altar and bronze basin. God personally appointed Bezalel and Oholiab to take charge of the construction of the tabernacle and filled them with the Spirit of God, so that they could handle this task with wisdom and understanding. God commanded them to keep the Sabbath.

☐ Hymn43 – O Day of Rest and Gladness

Meditation • Exodus 30:12-18

Reading Plan • Exodus 30-31

- 12 "When you take the census of the people of Israel, then each shall give a ransom for his life to the LORD when you number them, that there be no plague among them when you number them.
- 13 Each one who is numbered in the census shall give this: half a shekel according to the shekel of the sanctuary (the shekel is twenty gerahs),half a shekel as an offering to the LORD.
- 14 Everyone who is numbered in the census, from twenty years old and upward, shall give the LORD's offering.
- 15 The rich shall not give more, and the poor shall not give less, than the half shekel, when you give the LORD's offering to make atonement for your lives.
- 16 You shall take the atonement money from the people of Israel and shall give it for the service of the tent of meeting, that it may bring the people of Israel to remembrance before the LORD, so as to make atonement for your lives."
- 17 The LORD said to Moses.
- 18 "You shall also make a basin of bronze, with its stand of bronze, for washing. You shall put it between the tent of meeting and the altar, and you shall put water in it,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성도는 구 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나는 어 떻게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By keeping the Sabbath, the believer must be distinguished. So, how are you spending the Sabbath to keep it holy?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린허스트 영광한인교회, 임희영(NJ)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 정호석(NJ)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안식일 Sabbath

십계명을 주시고 생활에서 지켜야 할 율례들을 가르치신 후, 하나님은 성 막과 여러 기구들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시 한번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 고 하십니다. 표징이라는 말은 표시가 되는 특징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표시, 그 특징은 안식일을 지 키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세상과 구별 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 만이 누리는 특별한 축복이자 의무입니다. 그만 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요구했었기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조차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8:13-14절에서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라고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날, 존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After giving the Ten Commandments and the ordinances to be observed in their lives, God showed the Israelites how to make the tabernacle and other equipment. And God once again speaks of the Sabbath. The Sabbath is said to be a sign between Him and the Israelites. The word "sign" means to be a marked feature. A special mark of being a child of God and a people of the kingdom is that it would be revealed by keeping the Sabbath. If they do not keep the Sabbath, they cannot be said to be God's people set apart from the world.

The Sabbath is a special blessing and duty enjoyed only by God's people. That is why it is so important to keep the Sabbath day holy. So, how do we keep the Sabbath holy? The Pharisees strictly stipulated the things not to be done on the Sabbath and demanded strict observance, so that they even criticized Jesus for healing on the Sabbath. However, keeping the Sabbath day holy does not mean simply forbidding what you should not do.

"If you call the Sabbath a delight and the LORD's holy day honorable, and if you honor it by not going your own way and not doing as you please or speaking idle words, then you will find your joy in the LORD..." (Isa 58:13–14). The Sabbath is a delightful, honorable day. It is a day to worship and praise God and rejoice in the God of salvation. I hope you keep the Sabbath and worship God sincerely.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요일·Sat

2022 March

# 금송아지 사건

The Golden calf incident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실제로 건축하는 이야기가 35장부터 40장까지 기록됩니다. 그런데 32장부터 34장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자기들의 생각보다 늦어지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다른 신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아론이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사건입니다.

#### ♬ 새500장(통258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 묵상·출애굽기 32:26-35

통독·출애굽기 32장

- 26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 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 27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 28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 29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 30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 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 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 31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었사오니 큰죄를 범하였나이다
- 32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 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 워 버려 주옵소서
- 3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 34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 의 죄를 보응하리라
- 35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그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 Reading Insight

In Exodus 25 to 31, God's instruc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tabernacle are given, and chapters 35 to 40 record the actual construction of the tabernacle according to God's command. However, in chapters 32 to 34, the worship of the golden calf is recorded. When Moses remained on the mountain later than they expected, the people asked Aaron to make a statue of another god, and they worshiped the golden calf that Aaron made.

☐ Hymn500 - Throw out the Life Line

Meditation • Exodus 32:26-35

Reading Plan • Exodus 32

- 26 then Moses stood in the gate of the camp and said, "Who is on the LORD's side? Come to me." And all the sons of Levi gathered around him.
- 27 And he said to them, "Thus says the LORD God of Israel, 'Put your sword on your side each of you, and go to and fro from gate to gate throughout the camp, and each of you kill his brother and his companion and his neighbor."
- 28 And the sons of Levi did according to the word of Moses. And that day about three thousand men of the people fell.
- **29** And Moses said, "Today you have been ordained for the service of the LORD, each one at the cost of his son and of his brother, so that he might bestow a blessing upon you this day."
- **30** The next day Moses said to the people, "You have sinned a great sin. And now I will go up to the LORD; perhaps I can make atonement for your sin."
- 31 So Moses returned to the LORD and said, "Alas, this people has sinned a great sin. They have made for themselves gods of gold.
- **32** But now, if you will forgive their sin--but if not, please blot me out of your book that you have written."
- 33 But the LORD said to Moses, "Whoever has sinned against me, I will blot out of my book.
- 34 But now go, lead the people to the place about which I have spoken to you; behold, my angel shall go before you. Nevertheless, in the day when I visit, I will visit their sin upon them."
- 35 Then the LORD sent a plague on the people, because they made the calf, the one that Aaron made.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How do you live to be on God's side?

가족과 친구, 이웃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Are you living your life while fully sharing Jesus with those close to you, such as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모리스타운한인교회, 지동규(NJ)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이기성(NJ)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하나님 편에 선 자 Ones who stand on God's side

모세는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자원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뭐였나요? 범죄한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레위 자손들에게 죽은 자가약 삼천 명이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가족과 이웃, 친구들인데,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 서다니, 레위 사람들이 너무 인정없다는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편보다 사람 편을 더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죄된 것들을 버젓이 행하는 우리 가족, 친구, 이웃을 보면서, 권면하는 대신에 그들 눈치를 봅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악항을 내버려 둡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 구절 중의 하나가 눅 14:26 일 것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부모 형제를 미워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되,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보다 영생을 얻도록 먼저 도 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Moses calls those who are on God's side to judge the sins of the people who worshiped the idol. Then the Levites stepped forward. What was God's command to the Levites? It was to kill their brothers, friends, and neighbors who had sinned. About 3,000 people died by the Levites that day. No matter how many sins they committed, they were family, neighbors, and friends, but Levites took the lead in killing them. Do you think the Levites were too merciless?

Sometimes we take the side of people more than we do with God. Even though God has clearly said it is a sin, we look the other way when our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shamelessly commit those sins instead of admonishing them. We try to understand their situation. We leave their wickedness alone.

One of the passages that makes my heart very uncomfortable when reading the Bible is probably Luke 14:26. "Anyone who comes to me cannot be my disciple unless he hates his father and mother, wife and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 and above all, even his own life." Going to church does not mean that you can hate your parents and siblings. We hate sin, but we must lead our family, neighbors, and friends to know God and be saved. Rather than taking the side of people, we must first help them gain eternal life.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27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M 71 H D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J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한 구인의 결정 IIIIS Week	
	)

MARCH

#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이진희 목사 (웨이코 KUMC)

성경에 레갑 족속이 나온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렘 35:6-7).

광야로 들어가 집도 짓지 말고 장막을 치고 살라는 것이었다. 땅도 소유하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는 것이었다.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라는 것이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인가? 그러려면 가나안에 왜 들어왔겠는가?

여호나답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 바알을 섬기는 모습을 본 것이다. 신앙이 타락해가고 있는 것을 본 것이다. 이방 문화에 깊이 빠져들어 죄악 가운데 살 아가고 있는 것을 본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본 것이다. 그는 이런 것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알았다. 다시 광야 시절로 돌아가 신앙을 회복해야만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었다.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가 좋은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며 우양이 번성하고 배가 부르며 소유가 풍부하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데, 여호나답은 그 반대로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했다. 이유는 하나다. 그래야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그만치 250년 이상 동안 여호나답의 명령대로 광야로 들어가서 장막을

치며 가나안과의 일체의 관계를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았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광야에 들어가 농사도 짓지 않고 양을 치면서 장막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갔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제 머지않아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섬겼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하나님만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매일 체험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 배가 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바알을 따라갔다. 이방 문화에 빠졌다. 그래서 여호나답은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호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호2:14-17).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렘 2:2).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처음 만나 사랑을 한 곳이 광야였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 곳이 광야였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혼을 보낸 곳이 광야였다.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신혼 시절이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숙한 신부였고, 남편되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유목민(노마드)로서 살았다. 노마드는 집을 짓지 않고 산다. 땅도 없다. 창고를 짓지 않는다. 쌓아놓고 살지 않는다. 소유의식이 없다.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있는 것에 자족하며 살아간다. 불편하다고 불평

하지 않는다. 평생 이동하며 살아간다.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땅에 집착하지 않는다. 또한 광야는 문명 세계와 거리가 멀다. 타락한 문명을 접할 기회가 없다. 생활이 단순 하다. 탐욕을 부릴 수 없다. 광야에서는 유일신만을 섬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 농경 생활을 하면서 바알을 따라가게 되고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어 갔다. 세속적으로 변질되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예언자들은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을 망쳤고 세속 문명이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었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 돌아가 유목 정신과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누리 기를 원한다. 좋은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고 창고를 채우기 위해 애를 쓴다. 다 탐욕을 따라간다.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다. 우리도 다시 광야로 돌아가노마드들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다고 양을 치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노마드 정신과 가치관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있다.



<sup>ваед</sup>·моп

2022 Manah

# 다시 깎은 두 돌판

The New Stone Tablets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금송아지 사건으로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돌판을 깎아 산으로 올라오라 하셨고, 모세는 사십 일을 지낸 후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 ♬ 새284장(통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 묵상·출애굽기 34:28-35

통독·출애굽기 33-34장

- 28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 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 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 더라
- 29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 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 30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 워하더니
- 31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 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 32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그들에게 명령하고
- 33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 을 가렸더라
- 34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 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 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 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 Reading Insight ....

The Lord tells the Israelites to go to Canaan but decides not go with them because He is angered by the golden calf incident. Moses, however, pleads with the Lord to go with them, saying that the Lord's presence is what sets them apart from other people. The Lord tells Moses to chisel out two stone tablets and come up on Mount Sinai. When Moses descends from the mountain after forty days, his face is radiant.

☐ Hymn284 - The Abundant Love of Jesus

Meditation • Exodus 34:28-35

Reading Plan • Exodus 33-34

- 28 So he was there with the LORD forty days and forty nights. He neither ate bread nor drank water. And he wrote on the tablets the words of the covenant, the Ten Commandments.
- 29 When Moses came down from Mount Sinai, with the two tablets of the testimony in his hand as he came down from the mountain, Moses did not know that the skin of his face shone because he had been talking with God.
- 30 Aaron and all the people of Israel saw Moses, and behold, the skin of his face shone, and they were afraid to come near him.
- 31 But Moses called to them, and Aaron and all the leaders of the congregation returned to him, and Moses talked with them.
- 32 Afterward all the people of Israel came near, and he commanded them all that the LORD had spoken with him in Mount Sinai.
- 33 And when Moses had finished speaking with them, he put a veil over his face.
- 34 Whenever Moses went in before the LORD to speak with him, he would remove the veil, until he came out. And when he came out and told the people of Israel what he was commanded,
- 35 the people of Israel would see the face of Moses, that the skin of Moses' face was shining. And Moses would put the veil over his face again, until he went in to speak with him.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마음에 평안과 감사, 기쁨과 감격이 넘치 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얼 굴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Do you feel peace, gratitude, joy and gladness knowing that God is with you? And do you think your face is showing that?

오늘 아침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어떠했습니까?

How was your face that you saw in the mirror this morning?

####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얼굴은 마음의 창 Face, the Window to One's Heart

모세가 사십 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얼굴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시내산을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산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이 가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가 공회에서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 라 증거할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돌에 맞아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에는 감사와 감격이 넘쳤을 것입니다.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의 얼굴에는 빛이나고, 천사처럼 보이고 있을까요?

The Bible says that, when Moses came down from the mountain after 40 days of fasting and being with the Lord, his face was radiant. One's face is the window to one's heart.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the heart, one can have a happy face or sad face. For example, the face of a person for whom everything is going well will lit up with a smile while the face of a person who has many worries will show downcast. If so, there is nothing strange about the fact that Moses' face was radiating as he was coming down from the mountain after spending time with the Lord. This shows that Moses' heart was full of joy, gratitude, gladness and peace when he was with the Lord on the mountain.

In the Book of Acts, we read that the face of Stephen was like that of an angel when he boldly witnessed Christ at the council. His face probably radiated with gratitude and glory even as he was being stoned to death. Have you wondered what other people might see in your face? Will they see radiance or the face of an angel?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콜라연합감리교회, 안명훈(NJ)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 조민호(NJ)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022 March

#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백성들

People Who Gave With a Willing Heart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모세는 성막을 지을 물자를 모집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넉넉히 드리니부족함 없이 성막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 ♬ 새213장(통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 <sub>묵상</sub>·출애굽기 36:1-7

통독·출애굽기 35-36장

- 1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 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 이니라
- <sup>2</sup>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 3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 4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 을 중지하고 와서
- 5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 6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 7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 Reading Insight ·····

Moses was collecting the materials for building the Tabernacle. And the people of Israel brought whatever they could for the project. When people gave willingly as the Spirit moved in them, there was more than enough to start building the Tabernacle.

₱ Hymn213 - Take My Life, and Let It Be

## Take My Life,

Meditation • Exodus 36:1-7

Reading Plan • Exodus 35–36

- 1 "Bezalel and Oholiab and every craftsman in whom the LORD has put skill and intelligence to know how to do any work in the construction of the sanctuary shall work in accordance with all that the LORD has commanded."
- <sup>2</sup> And Moses called Bezalel and Oholiab and every craftsman in whose mind the LORD had put skill, everyone whose heart stirred him up to come to do the work.
- <sup>3</sup> And they received from Moses all the contribution that the people of Israel had brought for doing the work on the sanctuary. They still kept bringing him freewill offerings every morning,
- 4 so that all the craftsmen who were doing every sort of task on the sanctuary came, each from the task that he was doing,
- 5 and said to Moses, "The people bring much more than enough for doing the work that the LORD has commanded us to do."
- 6 So Moses gave command, and word was proclaimed throughout the camp, "Let no man or woman do anything more for the contribution for the sanctuary." So the people were restrained from bringing,
- 7 for the material they had was sufficient to do all the work, and more.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나요?

What is the condition of my heart when I participate in God's work?

####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제자교회, 이영기(NJ) 주님의 은혜교회, 최준호(NJ) 목회자를 위한 기도

# 행복한 비명 Scream with Joy

실제적인 성막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가져오도록 하였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쓰일 자원을 너무 많이 가져오는 바람에 오히려 일의 진척이 느려질 정도였습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3절), 가져온 예물을 정리하느라 성막 건설에 방해가 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 담당자들은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물자를 그만 좀 가져오라고 말해 주세요,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짓고도 남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비명 아닌가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시작했는데, 성막에 사용될 재료를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했더니,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남아도는 지경이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순간인가요?

36장에서는 자원하는 사람, 마음에 원하는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능력이나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받은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가운데에서도 늘 "차고도 넘칩니다" 하는 행복한 비명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The building of the Tabernacle began. When Moses summoned people to bring the materials for the building of the Tabernacle, people brough too much that it caused disruption in the work. When "the people continued to bring freewill offerings morning after morning (36:3)," workers had to spend time and energy to sort the donated materials instead of in building. So the workers asked Moses to tell people not to bring anymore materials as what they already received was more than enough. This is what "screaming with joy" looks like. How wonderful it is to have a need fulfilled far beyond one's expectation and hope! How can anyone not scream with joy in this kind of situation?

In chapter 36, it is said that volunteers, people who were willing, people with wisdom, carried out this precious work of building the Tabernacle. The work that we do for God is work that ought to be done not with our skills or abilities alone but, more importantly, with our willing heart that is guided by the Spirit. May you also get to scream with joy in carrying out God's work as you experience overflowing provisions of all that you need.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ABBI-Wed

2022 March

# 성막 기구의 제작

Making of the Furnitures of the Tabernacle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36장에서 성막의 전체적인 골격을 만들었다면, 37장과 38장에는 성소와 지성소에 넣을 기구들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언약궤와 그 뚜껑인 속죄소, 성소에 놓을 진설병상과 금촛대, 분향단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 성막 뜰을 제작했습니다.

#### ♬ 새425장(통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sub>묵상</sub>·출애굽기 38:21-31

통독·출애굽기 37**-**38장

- 21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 22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 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 23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홍색실과가는 베실로수놓은자더라
- 24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스물아 홈 달란트와 칠백삼십 세겔이며
- 25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백 달란트와 천칠백칠십오 세겔이니
- 26 계수된 자가 이십 세 이상으로 육십만 삼천오백오십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베가 곧 반 세겔 씩이라
- 27은 백 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백 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백 달란트요
- 28 천칠백칠십오 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29드린 놋은 칠십 달라트와 이천사백 세겔이라
- 30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 31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 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 Reading Insight ······

While Chapter 36 provided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Tabernacle, Chapter 37 and 38 records the construction of the furniture for the Holy Place and the Holy of Holies. The ark of the covenant and the atonement cover for the Holy of the Holies, the table of showbread, golden lampstand, and altar of incense are constructed. For the Outer Court, bronze laver and the altar of burnt offering is constructed.

☐ Hymn425 - Have Thine own way, Lord

#### Meditation • Exodus 38:21-31

Reading Plan • Exodus 37–38

- 21 These are the records of the tabernacle,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as they were recorded at the commandment of Moses, the responsibility of the Levites under the direction of Ithamar the son of Aaron the priest.
- 22 Bezalel the son of Uri, son of Hur, of the tribe of Judah, made all that the LORD commanded Moses:
- 23 and with him was Oholiab the son of Ahisamach, of the tribe of Dan, an engraver and designer and embroiderer in blue and purple and scarlet yarns and fine twined linen.
- 24 All the gold that was used for the work, in all the construction of the sanctuary, the gold from the offering, was twenty-nine talents and 730 shekels, by the shekel of the sanctuary.
- 25 The silver from those of the congregation who were recorded was a hundred talents and 1,775 shekels, by the shekel of the sanctuary:
- **26** a beka a head (that is, half a shekel, by the shekel of the sanctuary), for everyone who was listed in the records, from twenty years old and upward, for 603,550 men.
- 27 The hundred talents of silver were for casting the bases of the sanctuary and the bases of the veil; a hundred bases for the hundred talents, a talent a base.
- **28** And of the 1,775 shekels he made hooks for the pillars and overlaid their capitals and made fillets for them.
- 29 The bronze that was offered was seventy talents and 2,400 shekels;
- 30 with it he made the bases for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the bronze altar and the bronze grating for it and all the utensils of the altar,
- 31 the bases around the court, and the bases of the gate of the court, all the pegs of the tabernacle, and all the pegs around the court.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나의 신앙도 연단을 받아 더 정결 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Can you remember an experience that your trials served to purify your faith in some way?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있습 니까?

Are the impurities in your heart removed regularly so that you may enter into the holy presence of God?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체리힐제일교회, 김일영(NJ) 코너스톤교회, 정희섭(NJ)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금 Gold

성막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 하나 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사함을 받는 거룩한 장 소를 금으로, 그것도 순금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금을 쳐서 씌우기도 하고, 금으로 테를 두르기도 하고, 순금으로 물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화 려하고 아름답고 반짝거렸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은 늘 가치의 표준이 되어 왔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떨어져도 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금을 사서 모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은 원래 돌 속에 다른 광물과 함께 섞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불에 넣어 연단하면 순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1톤짜리 광석중에 단 2g 만 금이 섞여 있어도 그 돌을 금광석이라고 부른다고 하니, 금이들어 있는 돌에서 순금을 뽑아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가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금만 남기기 위해서는 혹독한 연단, 제련의 관정이 필요한데, 천도 이상의 용광로에서 불순물은 다 녹아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배당을 순금으로 꾸미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마음에 더러움이 가득한 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죄악의 불순물이 다 사라진 순 금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hat is the Tabernacle? It is the place where people encounter the Lord, worship the Lord, receive the grace of forgiveness for their sins, and glorify the Holy Lord. For this reason, people are making this holy place with pure gold. Gold is used to overlay certain things, put a gold molding around other things, and some other items are made with pure gold. We can only imagine how beautiful and sparkling everything was!

Gold always has been used as a standard of value. People often buy gold believing that the value of gold will not depreciate even when the value of money does. Gold is something that exists in rocks mixed with other minerals. But when the rock that contains gold is passed through fire and purified, pure gold is extracted. Even when 1 ton of ore contains 2 grams of gold, it is called gold ore. So, one can imagine how difficult it is to extract gold from gold ores. In order to extract pure gold, the ores must go through process of purification that involves passing through a furnace that is hotter than 1000 degrees, melting away any existing impurities.

We no longer decorate the churches with pure gold. But one thing that we need to remember is that we cannot enter into the Holy presence of God with our hearts full of impurities. If we want to encounter Holy God, we must first have our sins forgiven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be clothed with Christ, and have our hearts purified like pure gold.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목요일·Thu

# 성막의 완성과 봉헌

The Completion and Dedication of the Tabernacle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마련한 것을 끝으로 성막 건축이 완성되었습니 다. 성막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들은 완전하게 제작이 끝났고. 출애 굽기 40장에서는 그 완성된 부품들을 하나씩 조립하여 전체 성막을 세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성막을 봉헌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 ♬ 새600장(통242장) 교회의 참된 터는

#### 묵상·출애굽기 40:33-38 통독·출애굽기 39-40장

- 33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 34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 하매
- 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 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 37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 가지 아니하였으며
- 38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 Reading Insight ·····

The tabernacle building project is completed with making the priestly garments. The work of making the needed items for different parts of the tabernacle has been completed and the work of putting together these items and setting up the tabernacle is outlined in chapter 40. When the time came to dedicate the Tabernacle,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abernacle.

☐ Hymn600 - The Church's One Foundation

Meditation • Exodus 40:33-38

Reading Plan • Exodus 39-40

- 33 And he erected the court around the tabernacle and the altar, and set up the screen of the gate of the court. So Moses finished the work
- 34 Then the cloud covered the tent of meeting, and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abernacle.
- 35 And Moses was not able to enter the tent of meeting because the cloud settled on it, and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abernacle.
- **36** Throughout all their journeys, whenever the cloud was taken up from over the tabernacle, the people of Israel would set out.
- <sup>37</sup> But if the cloud was not taken up, then they did not set out till the day that it was taken up.
- 38 For the cloud of the LORD was on the tabernacle by day, and fire was in it by night, in the sight of all the house of Israel throughout all their journeys.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까? Have you obeyed the Lord in your faith journey life?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Why is obeying the Lord's

Why is obeying the Lord's command difficult?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김기천(NM) 겨자씨 한알 교회, 이기용(NV)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순종 Obedience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는 말씀은 출애 굽기 마지막 두 장에 무려 열일곱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단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축복이 임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을까, 사람의 지혜와 생각과 계획이 넘쳐나지만, 사실 해답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이자 정답입니다. 성막을 아름답게 짓는 역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일어나고,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을 누렸듯이,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아래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In the last two chapters of Exodus, the statement, "Moses did everything just as the Lord commanded him" is recorded seventeen times. If there is one rule in doing God's work, it is this, doing everything "just as the Lord commanded." And when people obey what the Lord command, people will experience the Lord's blessings. Here, we learn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of life for believers, which is that they should live a life of obedience, according to God's Word and as God commanded.

We all look for ways to succeed in life and to live a happy and blessed life. And there are no shortages of answers to how this can be done. But the answer is surprisingly simple and clear. It is by living according to what the Lord commanded. The work of building a beautiful tabernacle was achieved through obeying the Lord's commands and, through obedience, people experienced the glory of the Lord. In the same way, our life can be beautiful and glorious when we obey God fully in our lives. May you live a life of true obedience and come to know the wonderful blessings of God in your lif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레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kumcdevotion@gmail.com

### 2022년 3월 기쁨의 언덕으로

# 소그룹 교재

###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믿음의 선택 | 출애굽기 2:1-10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재앙 앞에서 | 출애굽기 8:20-32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십계명 | 출애굽기 20:1-17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속전 | 출애굽기 30:11-16



# 믿음의 선택



새279장(통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 01 여는 질문

악한 세상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리스도인이라서 불합리한 선택 앞에서 고민해본 적이 있나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 02 본문이해

모세가 태어날 때는, 히브리인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내렸던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자녀의 출생이 기쁨으로 축하받는 일이 되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석 달간 숨겨 길렀습니다. 노예 신분에 불과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숨겨 길렀을까요? 이 일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단순히 아이가 불쌍해서 죽이지 못하고 숨겨 기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세상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상황은 다르지만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세상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요구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 직장을 선택하는 일, 집을 계약하고 세금을 내는 일 등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일을 따를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학교에서 종교적인 언급을 했다가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라고 강조할뿐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편협하고 배타적인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모세의부모처럼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세상과 맞설 수 있을까요? 세상이 이런데 내가 어쩌겠어 하면서 잘못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선택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힘이나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겠노라,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결단하였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을 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하나

님께 맡기고 나일강에 내려놓았듯이, 우리도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 03 말씀속으로

- 1. 모세는 태어난지석 달만에 어떻게 되었나요? (3절)
- 2. 바로의 딸은 나일강에서 아기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나요? (9절과 10절

### 04 삶속으로

- 1.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 2.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 **05** 암송구절 출애굽기 2:10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 06 자녀와나눔

- 1.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교회에서 배운 것과 다른 것이 있었나요?
- 2. 혹 친구들이 나쁜 일을 하자고 할 때 어떻게 대답했나요?



# 재앙 앞에서



새322장(통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 01 여는 질문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연이나 사회에 생긴 재앙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특히, 지난 이 년간, 전 세계를 거의 마비시킨 코로나 팬데믹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하나님께 드린 질문이 있었나요?

### 02 본문이해

지진, 홍수, 쓰나미, 산불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기술과 지식이 대단해서 우주도 정복하는 시대가 된 줄 알았는데,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새삼느끼게 됩니다. 특히, 지난 이 년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퍼져 나가더니 온 세계가 거의 멈춰 서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외출하는 것을 죽음의 경계를 드나드는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누구나 한 번쯤 질문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얼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수천 년 전, 애굽에 닥쳤던 재앙들을 생각해 봅니다. 한 예로, 파리떼가 온 나라를 덮쳐올 때, 어땠을 까요? 파리가 덤비면 소리도 싫고 감촉은 더 싫습니다. 더러운 질병을 옮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음식을 차려 놓았는데 파리가 와서 앉아 있다면 기겁을 하고 쫓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 온 땅을 덮은 파리떼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두 마리도 아니고, 세상을 덮을 만큼 많은 파리떼가 나타났다면, 쫓아내기는커녕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을까요? 파리떼로 인해 나라가 황폐해질 지경이 되었다니, 아주 심각한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파리 재앙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파리떼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2절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23절에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애굽에게만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거나, 어쩌다보

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런 재앙 앞에서 타협을 시도합니다.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파리떼가 다 떠나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약하게 하여 말을 바꿉니다.

성도는 재앙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급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마음을 바꾸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가족, 교회와 세상을 위해 언제나 기도하기 바랍니다.

### 03 말씀속으로

- 1.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린 네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24절)
- 2. 파리 재앙 앞에서 바로의 타협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28절)

### 04 삶속으로

- 1. 자연재해나 사회의 재난들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 2.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했나요?

### 05 암송구절 출애굽기 8:22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 06 자녀와나눔

- 1. 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생겼는지 생각해 보았나요?
- 2. 만약 뒷산에 산불이 난다면 뭐라고 기도할 건가요?



# 십계명



새393장(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 01 여는 질문

법이나 규칙은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법규들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 02 본문이해

출 20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에서 배울 수 있는 전체적인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십계명은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도 십계명을 들어본 경험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따를 생각도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지키라는 말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인도자 이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거룩과 완전에서 아직은 좀 멀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즉 세상과 다른 사람들임을 알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함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십계명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현대 사회를 규정하는 표현 중의 하나가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생각해서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떠오르지 않나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때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각자다름을 주장하고, 자기들의 다름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멋지게 포장된, 악하고 위험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주장하며 상황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떠나 언제나 진리입니다.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리다 하시면 틀린 것이고 하나님이 나쁘다 하시면 나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셋째, 십계명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따를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법을 만들고 선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법은 당연히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당연히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잘듣고, 순서에 맞게 달달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순종 없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듯이,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이 순종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요일 5: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은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 03 말씀속으로

- 1.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2절)
- 2. 십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17절)

### 04 삶속으로

- 1.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시며 인도자 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2. 십계명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05** 암송 구절 출애굽기 20: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 06 자녀와나눔

- 1. 가정이나 학교에 있는 규칙을 잘 따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십계명 중에 지금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 속전



새259장(통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 01 여는 질문

만약 내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누군가 나를 풀어주기 위한 돈을 지불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무엇을) 말했을까요? 나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 02 본문이해

출애굽기 30장에는 속전에 대한 규정이 등장합니다.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20살 이상 성인 남자는 속전으로 반세겔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겠다고 하십니다. 출30:12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 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 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 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렇다면 속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속전이란 죄를 보상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석방한다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배상할 때 속전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오며, 하나님만이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속전에 대한 말씀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의 속전을 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 30:15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부자는 좀 더 내도 괜찮을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은 좀 깎아주면 좋았을 텐데, 왜 같은 값의 속전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속죄의 값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배웠건 못 배웠건, 우리는 동일한 값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5-6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에 사용된 대속물이라는 말이 바로 속전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속전은 오직 예수 그

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이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내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 03 말씀속으로

- 1. 이십세 이상의 성인 남성은 얼마의 속전을 드려야 했나요? (13절)
- 2. 드려진 속전은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16절)

### 04 삶속으로

- 1.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산 물건이 있다면 무척이나 소중하게 다룰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 2. 나를 위해 피 흘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내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 05 암송구절 창세기 48:16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 06 자녀와나눔

- 1.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 2.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귀한 존재임을 알고 있나요?



# Choosing by Faith



Hymn279 Pass Me not, O Gentle Saviour

### Opening Discussion

Have you ever felt that it's hard to bear and raise children in this evil world? Have you ever struggled with choices because you are a Christian? What is it like to live by faith?

###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Moses was born during a very difficult time. The Hebrews were ordered to throw their sons into the Nile and kill them. It was a time when the birth of a child could not be celebrated with joy. Moses' parents hid Moses for three months. Israelites were nothing more than slaves. Disobeying the orders of the King of Egypt as a slave was dangerous. Doing so was risking your life. How did Moses' parents feel as they hid and raised their son? Hebrews 11:23 says, "By faith Moses' parents hid him for three months after he was born, because they saw he was no ordinary child, and they were not afraid of the king's edict." This verse says that Moses' parents did this by faith, not simply because they had pity on their son and could not kill him. Moses' parents, by faith, chose to follow God's will, not the command of the world.

The situation may be different now, but the world often requires saints living in the world to choose between following the world or following God. Whether it's raising children, choosing a job, buying a home or paying taxes, the world we live in now demands the saints to follow evil things. Sometimes we make religious remarks at school and we are disciplined. We are wrongfully disadvantaged in this world for believing in Jesus. The world is never favorable to saints who want to live by faith. People in the world emphasize understanding and embrace the differences in the world, but they also speak of living with faith as bigotry and exclusive. In this world, how should people of faith live? Can we, like Moses' parents, face the world without fear by faith? Can we choose the path God told us to take without accepting wrong as the reality?

It can't be done by your strength or determination alone. If you have decided that you will keep the faith and follow God, you must seek God's help. Just as Moses' parents entrusted him to God and placed him in the Nile when they could no longer hide him, we too must place our difficult problems down before God and seek God's help. Then, God will give you wisdom and guide you on the best and most blessed path.

### 03 Into the Word

What happened to Moses when he was three months old? (2:3) What did Pharaoh's daughter do when she found the baby on the Nile? (2:9,

### 04 Into our life

How should we live in this day and age as we look at the forefathers of faith who risked their lives to keep their faith? How should a Christian who lives in this world distinguish between the values of the world and the values of faith?

### 05 Memory Verse Exodus 2:10

"Come, let us deal shrewdly with them, lest they multiply, and, if war breaks out, they join our enemies and fight against us and escape from the land."

###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are the things you learned at school that are different from the teachings of your church? How did you respond when your friends asked you to join them in evil deeds?



# Facing Plagues



Hymn322 Gather Us in, Thou Love

### 01 Opening Discussion

What did the Egyptians and Israelites think when ten plagues fell on Egypt? What do you think of the disasters that occur in nature or in the world? What did you think of the Covid pandemic that has nearly paralyzed the world over the past two years? Did you have any questions for God?

###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floods, tsunamis, wildfires, etc. can make you fearful. I thought it was an era of conquering the universe with great human skills and knowledge, but I feel now how helpless human beings are before the power of nature. Especially over the last two years, something unthinkable has happened. The invisible virus spread, and the whole world almost stopped. People were afraid to go out as if they were on the brink of death. During the pandemic everyone probably asked, "What is God doing? What is God's plan?"

Consider the disasters that hit Egypt thousands of years ago. For example, what was it like when a swarm of flies overcame the whole country? When flies swarm, I don't like the sound, I don't like the texture. It's horrible to think that they might even carry a terrible disease. If you've placed your food on the table and flies land on the food, you'll be scared and shoo them away. But imagine a swarm of flies covering the whole Egyptian land at the time. If there were a great number of flies to cover the world, not just one or two, we couldn't have avoided them. It would have been a very serious disaster, as the flies devastated the country. Here are a few things to think about as you look at the plague of flies in Egypt. First, God did not send the plague of flies to the Israelites. God said in Exodus 8:22–23, "But on that day I will deal differently with the land of Goshen, where my people live," and in fact, only Egypt was afflicted, and the Israelites were protected. People of God can

know God's love and grace to protect and help them in the midst of calamities.

Second, everything is under God's control. People use the word "luck" or "chance" about things that happen in their lives. But nothing happens by chance or luck. Everything happens under the sovereignty of God. We can rest in peace since God, the creator and the sustainer, is still in control.

Pharaoh, king of Egypt, attempts to compromise before this plague. He told Moses to offer sacrifices in the land of Egypt and told him not to go too far. He even asks Moses to pray for him. But when the flies left after Moses prayed, Pharaoh hardened his heart again and changed his words.

Saints are humbled before calamities. We must recognize Almighty God as the lord of all things, and seek God's guidance and help. And we need to always pray. We tend to pray earnestly when we face a serious problem and change our mind and forget about it as soon as the problem is solved. Still, we need to pray for ourselves, our family, the Church, and the world

### 03 Into the Word

What was the fourth plague God sent to the land of Egypt? (8:24) What was Pharaoh's condition facing the plague of flies? (8:28)

### 04 Into our life

What should the saint's attitude be toward natural or social disasters? How did our faith grow during the Covid pandemic?

### 05 Memory Verse Exodus 8:22

"But on that day I will set apart the land of Goshen, where my people dwell, so that no swarms of flies shall be there, that you may know that I am the LORD in the midst of the earth."

###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Have you thought about why something like the Covid virus came into being? What would you pray for if there was a wildfire in your backyard?



## Ten Commandments



Hymn393 Great is Thy Faithfulness

### 01 Opening Discussion

What kind of influence do laws or rules have on people's lives? What do you think when you hear a sermon about the Ten Commandments? Why did God teach people the laws they needed to follow?

###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Exodus 20 is a story about the Ten Commandments we are very well familiar with. There are several lessons that we may learn. First, the Ten Commandments teach believers to be set apart from the world. People in the world may have heard of the Ten Commandments, but they are not interested. They don't have any intention of following them. What does it mean to them to keep Sabbath day holy, and what does it have to do with not serving another god? But saints are different from the people of the world. Believers are people who have been called as people of God. They are the ones who have been saved from the sinful world. They know that God is the Savior and the Lord. They are extraordinary people who have received commands from God whom the world does not know. Even if we are still a little far from holiness and perfection, we need to always remember that we must live according to the laws of God as God's people set apart from this world.

Second, the Ten Commandments are an abiding truth. One of the expressions that defines modern society is "an era without absolute truth." It's an age when people live as they see fit. The era of Judges comes to mind, doesn't it? Just as people then did what they saw fit their opinions, they still insist on their differences and insist that their differences need to be respected. These days, many of this generation are trying to determine right and wrong on their own. I don't know how nicely packaged, evil, and dangerous it is to say, "It is not wrong simply because it's different." So, sexually, economically, and

morally, people judge, decide, and live as they see fit in their own minds. Even among church—goers there are some who claim that it is impossible and ancient to obey the words of the Bible and that they should live according to their situations. But the Bible, the Word of God, is always true, all the time. Right and wrong, good and evil are not what we decide. If God says good, it is good, and if God says right, it is right. If God says wrong, it is wrong, and if God says bad, it is bad. We need to always remember that the fear of God is the beginning of wisdom and listen and obey God's Word and commandments.

Third, the Ten Commandments require obedience. If you don't expect people to follow, you won't even make or proclaim laws. The law, of course, demands obedience. The reason God gave the Law is, of course, a call for obedience. God's commandments do not end with listening well and memorizing them in order. King Saul wrongfully thought he could disobey God's Word and offer sacrifices. We cannot say that we are following the Word of God without obeying, just as sacrifice without obedience means nothing. I hope that this obedience is not forced, but rather voluntary out of love. 1 John 5:3 says, "In fact, this is love for God: to keep his commandments, and his commands are not burdensome." Obeying God's commandments because of love for God is not a heavy burden, but a joy.

### 03 Into the Word

What did God proclaim before he gave the Ten Commandments? (20:2) What are the Ten Commandments? (20:3–17)

### 04 Into our life

Do you acknowledge that God is the savior and guide of your life? What correlation is there between the Ten Commandments and the greatest commandments Jesus taught?

### 05 Memory Verse Exodus 20:2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the land of Egypt, out of the house of slavery."

###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Do you follow the rules at home and at school? If not, why? Which commandment of the Ten Commandment is hard to practice?



# **Atonement Money Ransom**



Hymn259 Have You Been to Jesus

### Opening Discussion

If someone paid for my release when I was sold into slavery, what would I have said to that person? Do you know Jesus who freed me from the slavery of sin and death and led me to the path of eternal life?

###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Exodus 30 introduces the regulation on ransom. It says adult men over 20 years old need to pay a half shekel for atonement. Then God will protect their lives and health. Exodus 30:12 says, "When you take a census of the Israelites to count them, each one must pay the Lord a ransom for his life at the time he is counted. Then no plague will come on them when you number them." What does it mean to "atone"? Ransom means money that pays for sin. At that time, the word "ransom" was used to pay and release slaves or to reimburse others for damages. So to give ransom for one's life is to confess that life comes from God, and that God alone is the savior of life.

One interesting thing about ransom is that God told everyone to pay the same amount of ransom. Exodus 30:15 states, "The rich are not to give more than a half shekel and the poor are not to give less when you make the offering to the Lord to atone for your lives." The rich could have afforded more and the poor would have appreciated a little discount. Why did God require the same amount? The value of the atonement to save our lives is the same for everyone. Whether we are rich or poor, learned or ignorant, our sins are forgiven with the same price.

"For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kind, the man Christ Jesus, who gave himself as a ransom for all people. This has now been witnessed to at the proper time" 1 Tim 2:5-6.

The word "ransom" used here is the same word for atonement money. In other words,

to save each one of us Jesus paid the ransom with his own life. The ransom that saves everyone is paid only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Only grace in the blood of Jesus Christ saves everyone from their sin and gives eternal life. I pray that each of us may walk with Jesus Christ, the Savior, in love and gratitude for his saving grace.

### 03 Into the Word

How much did adult men over 20 years old have to pay for atonement money? (30:13) How was the atonement money used? (30:16)

### 04 Into our life

You will cherish the items that you paid a high price for. Do you cherish yourself? The love and grace of Jesus Christ who bled and died for me is equally given to others. Do you treat people around you preciously? y

### 05 Memory Verse Exodus 30:16

"You shall take the atonement money from the people of Israel and shall give it for the service of the tent of meeting, that it may bring the people of Israel to remembrance before the LORD, so as to make atonement for your lives."

###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hear that Jesus died for you? Are you aware that you are a precious person bought with the life of Jesus?

# MISSIONARY OF THE MONTH



Advance: # 3022132 Country: Brazil

Serving At: Leadership Development for Women

in Latin America

Home Country: Brazil,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Soares, Andrea Reily Rocha

Andrea Reily Rocha Soares is a missionary with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erving as a regional missionary for leadership development with women in Latin America. Regional missionaries are selected and supported by United Methodist Women and placed in collaboration with the church's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Andrea was commissioned in October 2015.

Andrea serves as the main connection to the national office of United Methodist Women on health, empowerment, and gender issues throughout Latin America. The regional missionary program was launched in 2000 to support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of ministries among women, children, and youth in broad areas.

Andrea is a native of Ribeirão Preto, Brazil and after November 2015, an elder in the Methodist Church in Brazil. Prior to entering mission service, she was assistant pastor of the Central Methodist Church in Birigui, Brazil. She holds a Bachelor of Arts degree in religion and

Spanish Cultural Studies from Emory and Henry College in Virginia; a bachelor's degree in theology from the Methodist University of São Paulo, and a Master of Divinity degree in mission studies from Boston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She has worked as an English teacher and an interim pastor in Ribeirão Preto.

Born into a home with a Brazilian Catholic father and an American Protestant mother, Andrea was surrounded by Christian love, baptized as an infant, and became a member of the Methodist Church in Brazil at age 14. Her faith journey, she states, has been one of discovery of "who God is and who I am. It has been a voyage of learning to love, hope, and have faith—a journey of living out the extraordinary, of encountering the divine."

Her journey included living in Brazil, Chile, Northern Ireland,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in her youthful years. She is a citizen of both Brazil and the US. Her personal and spiritual search led her to her discovery of mission. In college, she developed an interest in religious studies and in teaching. "After four years in college, my sense of inner call to mission service continued to be confirmed on a regular basis," she recalls.

Andrea says a "little spark of God's grace" led her to seminary. In those years, she worked with immigrant church communities and did internships with faith-based social organizations in London. She prepared for many years for mission service, taking in all the experiences she could in many settings and contexts, constantly searching for experiences to get her ready for new paths and doors to God's reign.

She was married to Heber Sanches Soares in May 2015.

Contact Info: areily@umcmission.org

### 사귐의 기도 **/5**

**김영봉목사** 와싱톤사귐의교회, VA)

육적 욕구를 잠재워

금식 기도는 기도에 전념하기 위한 한 가 지방법이다.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 내기 위해 또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금식 기도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다. 하나님은 그 진실성을 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 금식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가 매우 불경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복된 삶을 선택하는 길이요, 우리 인생을 가장 충만하게 실현하는 길이다. 현재의 위기가 자신에게 아무리 치명적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금식하며기도하면주어지는 유익이 있다. 무엇보다 좀 더 영적 생활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준다. 배고픔에서 오는 육신적 고통은 '지금 나는 기도 중'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게 한다. 뿐만 아니라 공복 상태에서 정신은 훨 씬 맑아지며 모든 에너지를 정신적 활동에 쏟게 만든다. 위장이 음식물로 가득 차 있으 면소화에 에너지를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영적 활동에 사용할 에너지가 남지 않는다. 인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밀도 있는 영적 교제를 위해 금 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금식은 육신적인 맛에 길들어 있는 우리의 감각을 제어함으로써 영적 인 맛에 대한 열망을 일깨워준다. 금식은 언젠가는 버리게 될 음식을 미리 버 려 봄으로써 영적 음식의 중요성에 눈 뜨게 해준다.

그렇다면 얼마 동안, 어떻게 해야 '온전한 금식'이 되는가? 어떤 사람은 하루세 끼를 모두 금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모두 금식을 오해한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온전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이 온전한 금식인가'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충분히 만족할 만큼!' 한 끼를 걸러도 충분한 금식이 될수 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수 있다. 주남처럼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할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금식의 목적은 시간이 아니라 기도에 있음이다.

금식하는 방법에는 '정기적 금식'과 '비정기적 금식'이 있다. '정기적 금식' 은 날짜를 정해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 한 날을 선택해 실천하면 된다. 성금요일이나 고난 주간에 정기적으로 금식하 거나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새해를 맞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 정기적 금식이 유익한 이유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만들어 위기를 미리 예방하게 하기 때문 이다.

정해진 금식일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일이 율법이 되어 버리면 오히려 영성에 피해를 준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사하게 먹으면 된다. 먹는 것도 감사하고 금식하는 것도 감사하다. 바울사도의 말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고전 10:31) 하면 된다. 할 수 있는 한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되, 그 것을 율법으로 만들지는 말라.

비정기적 금식은 특별한 이유로 어느 기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개의 경우, 위기에 봉착했을 때 기간을 정해 놓고 금식 기도를 하게 된다. 하지만 비정기적 금식이 삶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면안된다. 오히려 영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영적으로 나태함을 느끼거나 지나치게 물질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다고 생각될때금식하며 기도에 전념하는게 필요하다.

금식 기도는 참 좋은 경건 훈련이지만 적지 않은 위험을 안고 있다.

먼저, 금식으로 자신의 영성에 대해 자만하게 되는 일이다. 금식은 단순히 자신을 깨워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수단인데, 잘못하면 훈장처럼 되어버린다.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만들기도 한다. 금식을 통해 사귐의 기도에 전념하면 결코 영적 자만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금식하면서 어떤 한계에 도전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도전에 실패하면 육체적 건강에 손상을 입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패배감에 빠지게 된다.

오래전 이사야는 형식적으로 금식 기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사 58:3-7)"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고 금식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하는 영성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금식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금식 후에 사랑의 능력이 더 강해져야 한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언제나 금식과 자선을 병행하도록 요청했다. 금식 기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금식이 영적 교만을 부추기고 만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

### 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귐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 믿음과 코로나

송강현성도\_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 KS

믿음도 코로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퍼져가는건 왜 코로나 뿐일까

믿음의 확진자는 어디에 있는가



# 팬데믹의하나님

배정희 집사 \_ 뉴저지체리힐제일교회, NJ

### 새벽이좋다.

코로나로 무서운 재앙속에서도 잔설이 남은 나뭇가지에 새싹들의속삭임이 들린다. 몹시 슬플 때는 해지는 모습을 좋아한다며 마흔세 번이나 본 날도 있다고 말한 '생떽쥐베리'의 어린 왕자처럼 새벽 동트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은 내가슬퍼서 인지도 모르겠다.

### 이새벽

사순절 연합예배로 '이사야'를 만난다. 오늘은 어떤 목사님의 주옥같은 말씀이 있을까 매일 설레임이 있다. 고국에서 명절에 친척들을 다 만나는 설렘임, 이것 또한 코로나가 준 슬프면서 행복한 선물이다.

미국생활 10년 모든 것이 생소한 미국은 두려움이었다. 기억의 저 너머에 하와이의 부드러운 바다가 있다. 한 점 바람의 감미로움 때문에 남편과 노후에 여기에 정착하자는 무언의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이야! 하와이의 부드러운 바람을 그리워는 하지만 감미로운 바람과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강풍노도 휘몰아치는 미동부의 거친 파도에서 안정과 평안을 찾는다. 삶은 계속되므로 인정해야 한다. 한국 마트를 찾아갔다. 골프채를 잡던 손에 양념을 묻히며 살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새벽기도가 끝나면 Health Club에 가서 아픈 다리를 뜨거운 물에 담그고 책 한 권을 다 읽고 집에 와서 잠만 잤다. 방 안에서 밥을 하여 간장에 비며 먹었다. 배고픔도 사치였다.

운전면허시험도 시민권시험도모두가 어려웠다. 운전 경력 30년 시험에 떨어졌다. 시민권 시험에 합격한 것이 자랑스럽다. 미국은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주는 곳이 많다. 5년이나 영어를 가르쳐 준 여자 변호사 '올가'는 지금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욥기'를 깊이 묵상하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며 주석을 찾아보며 당대의 의인 욥에게 왜 혹독한 고문을 주셨는지… 내 남편의 죽음은 우리 가족을 기독교로 이끌었고(나는 불교 가정에서 자랐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의인이었던 사람, 코로나로 존경하던 선배의 죽음이 전해졌다. 교회생활도 모범이었고, 사재를 털어 불쌍한 사람을 도우시는 그 인자한 모습, 자식들의 간호도, 보호도받지 못한 채 떠나셨다. 선한 사람들의 고통이 요기에만 존재하는 것일까? 16세기 세상을흔들었던 '페스트' 의사 레오를 통해 까뮈는 말한다. 페스트는 절대 죽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인간에게 불행과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 또다시

어떤 행복한 도시의 사람들을 죽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을 페스트로 살아남은 한 노인의 절규

"제일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페스트로 가 버리더군요. 그것이 인생이죠. '페스트' 그것이 인생이라구요."

과연하나님은정당하시고 공평하신가?

하나님을 모르는 삶도 인간적인 축복속에 사는 사람이 많다.

나는 항상 '왜?'라는 말을 외치며 살았다.

팬데믹은 직업이 없어졌지만 시간을 주었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동행하는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욥, 내남편, 선배의죽음

무엇보다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 53:6)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이 가슴에, 머리에 강하게 다가 왔다.

교회의 크리스마스트리가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을 교회의 모든 것이 그리움이 될 줄은 몰랐다.

### 총신대학원졸업식!

남편은 폐암 말기인데도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고

평온하고 행복한 모습이었다. IMF 사태로 재산이 없어지고

건강마저 잃어버렸지만 감정의 요동이 없었다.

본인이 가고 싶었던 그길 아들이 가고 있다.

그 길이 얼마나 가시밭길인지 알기에 세상의 행복을 누리기를 바랐지만 아들은 그 길을 원했다. 이제 안다.

산다는 것은 세상의 행복 추구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사위도 미생물학 박사로, 대학교수로 바쁜 가운데서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모두 내 남편의 한 알의 밀알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팬데믹이 끝나면 교회들이 크게 부흥될 것이라 믿는다. 인간과 과학의 한계를 알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생활 10년 내 생애에서 지난 60년의 세월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았다. 그 발자국 발자국마다 눈물의 길이었고 한의 길이었다. 이제 그 고통의 시간에 주님이 같이 아파하셨고 동행하였음을 안다. 분명히 기도에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놓는다. 삶의 무게를, 한을, 가슴을 누르는 바위를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통곡을 감사의 통곡을 한다. 이제 목사의 엄마로 부끄럼 없이 사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면 내 남편에게 칭찬받고 싶다.



#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 한 권에 \$3.5

###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35 per month

20권 매월 \$70 per month

30권 매월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레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10 □\$ 20 □\$ 30 □\$ 50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 66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99

###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조형, 520-760-9749)

####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백리한인연한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언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월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신상만, 805-302-1706)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가한나,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 •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범형렬, 706-407-8296)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조영진,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네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 Hawaii (하와이 주)

알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고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젼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딱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생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만, 773-643-2144)

###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만, 217-417-2288)

### • l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룡재, 620-231-2540)

### • Kentucky(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유, 410-200-3859)

###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전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백형두, 612-859-5882)

### • Missouri(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교, 314-426-5683)

### •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알교회(최<mark>영완, 702-595-3678)</mark>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 New Jersey(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그레이스벧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져지연합교회(<del>고한승, 201-816-1284~5)</del> 뉴져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del>정호석</del>,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 New Mexico(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 New York(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del>문정웅, 718-229-4024)</del>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리하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 •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트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멜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검현석, 330-743-7020) 캔토한인연합감리교회(검현석,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민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고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홍정균,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조병우, 215-884-5251)

### • Rhode Island(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런빌면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 Tennessee(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 · Texas(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백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누가연합감리교회(소정일,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백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윌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화-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 •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성톤사검의교회(검영봉, 703-939-0559) 와상톤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상톤한인교회(김영훈, 703-448-1131)

###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 Washington D.C(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 Wisconsin(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황선중,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정희권,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샤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 GAUM(괌)

광한인선교교회(<mark>김택수</mark>)

#### • Russia(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 성경진도표

2022/01			2022/02			2022/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창세기	1	01	창세기	27	01	출애굽기	1-2
02		주일	02		28	02	Ash Wed.	3
03		2	03		29	03		4
04		3	04		30	04		5
05		4	05		31	05		6
06		5	06		주일	06		주일
07		6	07		32	07		7-8
08		7	08		33	08		9-10
09		주일	09		34	09		11-12
10		8	10		35	10		13
11		9	11		36	11		14
12		10	12		37	12		15
13		11	13		주일	13		주일
14		12	14		38	14		16
15		13	15		39	15		17-18
16		주일	16		40	16		19-20
17		14	17		41	17		21-22
18		15	18		42	18		23-24
19		16	19		43	19		25
20		17	20		주일	20		주일
21		18	21		44	21		26
22		19	22		45	22		27
23		주일	23		46	23		28
24		20	24		47	24		29
25		21	25		48	25		30-31
26		22	26		49	26		32
27		23	27		주일	27		주일
28		24	28		50	28		33-34
29		25				29		35-36
30		주일				30		37-38
31		26				31		39-40

2022/04			2022/05			2022/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마가복음	1	01	시편[-][	주일	01	레위기	1
02		2-3	02		1-2	02		2
03		주일	03		3-5	03		3
04		4-5	04		6-7	04		4
05		6	05		8-9	05		주일
06		7	06		10-12	06		5
07		8	07		13-16	07		6
08		9	08		주일	08		7
09		10	09		17-18	09		8
10	고난주일	주일	10		19-21	10		9
11		11	11		22-24	11		10
12		12	12		25-27	12		주일
13		13	13		28-30	13		11
14		14	14		31-33	14		12-13
15		15:1-41	15		주일	15		14
16		15:42-27	16		34-35	16		15
17	부활주일	주일	17		36-37	17		16-17
18		16	18		38-39	18		18
19	고린도전서	1	19		40-41	19		주일
20		2-3	20		42-44	20		19
21		4	21		45-48	21		20
22		5-6	22		주일	22		21
23		7	23		49-50	23		22
24		주일	24		51-53	24		23
25		8-9	25		54-56	25		24
26		10-11	26		57-60	26		주일
27		12	27		61-64	27		25
28		13-14	28		65-67	28		26
29		15	29		주일	29		27
30		16	30		68-69	30		4
			31		70-72			

2022/07			2022/08			2022/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시편III-V	73-75	01	민수기	1-2	01	로마서	1
02		76-77	02		3-4	02		2
03		주일	03		5-6	03		3
04		78	04		7	04		주일
05		79-81	05		8-9	05		4
06		82-83	06		10	06		5
07		84-87	07		주일	07		6
08		88-89	08		11-12	08		7
09		90-91	09		13-14	09		8
10		주일	10		15	10		9
11		92-97	11		16	11		주일
12		98-102	12		17-18	12		10
13		103-104	13		19	13		11
14		105	14		주일	14		12
15		106	15		20	15		13
16		107-108	16		21	16		14
17		주일	17		22	17		15
18		109-112	18		23-24	18		주일
19		113-118	19		25	19		16
20		119:1-56	20		26	20	고린도후서	1-2
21		119:57-112	21		주일	21		3
22		119:113-176	22		27	22		4:1-5:10
23		120-125	23		28	23		5:11-7:1
24		주일	24		29	24		7:2-16
25		126-132	25		30	25		주일
26		133-137	26		31	26		8-9
27		138-140	27		32	27		10
28		141-143	28		주일	28		11
29		141-143	29		33	29		12
30		144-146	30		34-35	30		13
31		147-150	31		36			

2022/10			2022/11			2022/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신명기	1	01	여호수아	1	01	마태복음	3-4
02		주일	02		2	02		5
03		2	03		3	03		6
04		3	04		4	04		주일
05		4	05		5	05		7
06		5-6	06		주일	06		8
07		7-8	07		6	07		9
08		9	08		7	08		10
09		주일	09		8	09		11
10		10-11	10		9	10		12
11		12	11		10	11		주일
12		13-14	12		11	12		13
13		15	13		주일	13		14
14		16-17	14		12	14		15
15		18	15		13	15		16
16		주일	16		14	16		17
17		19-20	17		15	17		18
18		21	18		16-17	18		주일
19		22	19		18	19		19
20		23	20		주일	20		20
21		24-25	21		19	21		21
22		26	22		20	22		22
23		주일	23		21	23		1
24		27	24		22	24		2
25		28	25		23	25	성탄절	주일
26		29	26		24	26		23
27		30	27		주일	27		24
28		31	28	요엘	1	28		25
29		32	29		2	29		26
30		주일	30		3	30		27
31		33-34				31		28



###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레미야 운동)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편집기회
 김종완(느레미야 운동)

❖ 영어번역 양훈, 박길재, 김종완, Ester Kim

❖목회자기획위원 김진우, 박호현, 방승호, 배연택, 배혁, 조기현, 조선형

이보영, 유혁재, 차세진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히금숙, 조윤희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이보영 목사 (밴나이스 연합감리교회, CA)

#### ❖ 주일 칼럼

장이준 목사 (콜럼버스 한인연합감리교회, OH) 정기영 목사 (새빛 연합감리교회, OK) 나웅철 목사 (콜롬비아 한인연합감리교회, SC) 이진희 목사 (웨이코 한인연합감리교회, TX)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